
第1回
東北亞國際學術FORUM
結果報告書 別冊

- 日時：2004. 7. 6.(火) 09:30～18:20
- 場所：京畿中小企業支援CENTER 中會議室
- 主催：京畿道・遼寧省・神奈川県
- 主管：京畿開發研究院

Program

09:30-10:00 開 會

- 開 會 辭 : 趙 應 來 京畿開發研究院 企劃調整室長
- 歡 迎 辭 : 韓 錫 圭 京畿道 經濟投資管理室長

10:00-12:00 人文社會分科 FORUM

- 司 會 : 吳 勇 錫 慶星大學校 教授
- 主題發表 : 李 洙 行 京畿開發研究院 責任研究員
馮 貴 盛 遼寧省 社會科學院 研究員
龜井知之 神奈川縣企劃部京浜臨海部活性推進課主幹
- 討 論 : 盧 松 遼寧省政府發展研究中心 副主任
李 相 勳 京畿開發研究院 前任研究委員

12:00-14:00 午餐・休息

14:00-16:00 自然科學分科 FORUM

- 司 會 : 李 東 根 Seoul大學校 教授
- 主題發表 : 禹 穎 子 遼寧省 社會科學院 副研究員
加藤陽一 神奈川縣 環境科學Center 主任研究員
成 炫 贊 京畿開發研究院 前任研究委員
- 討 論 : 俞 憲 錫 韓國環境政策評價研究院 研究委員
曹 曉 峰 遼寧省 社會科學院 副院長

16:00-16:20 休 息

16:20-18:20 行政分科 FORUM

- 司 會：曹 曉 峰 遼寧省 社會科學院 副院長
- 主題發表：金 東 成 京畿開發研究院 研究委員
于 治 賢 遼寧省 社會科學院 研究員
金子敦彦 神奈川縣 縣民部 國際課 主幹
- 討 論：吳 映 均 京畿開發研究院 責任研究員
盧 松 遼寧省政府發展研究中心 副主任

18:20 閉 會

제1회 동북아국제학술포럼

개 회 식

▪ ▪ ▪

○ 사회자

동시통역기 사용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탁자에 놓여진 통역기에 1번은 한국어, 2번은 중국어, 3번은 일본어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탁자에 놓여진 통역기에 1번은 한국어, 2번은 중국어, 3번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회 동북아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포럼은 경기도,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관심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세 지역간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기도, 중국의 요녕성, 일본의 가나가와현이 공동주최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전원을 꺼 주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동북아 국제학술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대리하여 조응래 기획조정실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조응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요녕성, 가나가와현에서 오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제1회 동북아 국제학술포럼을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학술포럼은 2002년 10월 요녕성에서 개최된 한·중·일 우호교류협의회에서 경기도지사께서 3개국 지역간에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공동학술포럼개최를 제안해서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지역은 지난 20년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중국이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세계경제 무대에 등장하면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에 약 30%에 달하는 등 세계3대 경제축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역내 교역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호간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한때 역내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유럽에 이르는 교역로를 실크로드라 불렀다면 일본에서 한반도 및 중국의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교역로는 실버로드라 불릴 만큼 3국간에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체제는 글로벌 기업의 급성장 및 WTO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EU, 나프타 등에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브로커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TA체결을 통한 쌍무적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 또한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간에 역내교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동서진영의 대결구도 속에서 완충작용을 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가로막았던 북한이 개혁개방을 가시화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

한의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개성 및 신의주 경제특구가 빠른 속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진일보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과거 활발하게 진행되던 실버로드가 새로운 모습으로 활기차게 다시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국가간에는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정치적인 역학관계 등 역내 특수성으로 인한 EU, 나프타 등과 같은 진일보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블럭화 등의 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또한 역내 국가의 진일보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3대 경제축 가운데 하나로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세계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일보한 협력의 토대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은 각기 3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과거 동북아지역의 역내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실버로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지역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과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실버로드를 재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나가와현, 요녕성 그리고 경기도 3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개최하게 된 동북아 학술포럼이 바로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과 본 학술포럼에 주제발표를 맡아 주실 여러 발제자 그리고 특히 오용석 교수님, 문정구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또한 본 행사의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관계자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다음은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 한석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제가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기초실장님, 요녕성 政府發展研究中心 盧松(루송) 부주임님, 가나가와현 현민부 국제과 金子教彦(가네코 노리히코) 주간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관계자 여러분 오늘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3지역의 학자와 연구원들이 모여 3지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협력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동북아 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원 이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학술포럼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양의 현인인 공자께서는 “친구가 먼 곳에서 방문하면 또한 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여 친구의 방문을 인생의 삼락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본 제1회 동북아 학술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요녕성과 가나가와현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뜨겁게 환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떠오르는 동북아시대에 있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녕성 등 3개 지역은 그동안 양자협력관계와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관계를 통하여 재해방제 공동대처 및 정보공유회의, 기초자치단체간 협력확대, 환경오염방지 공동대처 등 경제, 문화, 환경 그리고 행정분야에서 긴밀한 지역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회 동북아 학술포럼은 지난 2002년 10월 요녕성의 제4회 3지역 우호교류 회의에서 3지역 지도자간 합의된 의제로서 당시 발제자였던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는 향후 동북아 3지역의 협력강화와 이를 위한 전문 학술연구기관 및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포럼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무자들간 학술포럼의 성격과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금년 2월엔 의제 및 일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오늘 이렇게 3지역이 만족하는 포럼을 이끌어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포럼은 첫 번째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각 분야별로 포괄적인 주제를 잡았고 향후 해를 더해 갈수록 구체적인 의제 및 분야를 다루는 전문 학술포럼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 학술포럼이 3지역 우호교류회의의 의제를 사전에 결정하고 지도자 회의때는 전문가그룹으로 지원함으로써 3지역 우호교류회의와 긴밀한 관계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북아 학술포럼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석학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밑바탕이 되었을 때 상호 공동번영과 평화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동북아 학술포럼이 우리들 모두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학술포럼이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3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국제협력사업발굴이라는 제1회 동북아학술포럼의 목적을 달성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생산적인 포럼이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남은 일정동안 저희 경기도에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다음은 중국 방문단을 대표하여 요녕성 政府發展研究中心의 盧松 부주임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 요녕성 政府發展研究中心 盧松

존경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실장님, 경기도투자관리실 한석규 실장님, 가나가와현 현민부국제과金子教彦先生,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함께 했던 만찬과 백세주는 우리 중국방문단에게 매우 유쾌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경기도 관련자 분들의 환대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녕성 3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가 서로 비슷한 한가족과 같습니다. 요녕성에는 중국최대의 한국거리인 심양 서탑가가 있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본거리인 대련 남산로가 있습니다. 세 지역의 우호와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학술교류형식을 통한 세지역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우리 세 지역의 교류가 좀더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경로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볼 때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의 거리나 일본의 거리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경제 글로벌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칼날의 양면으로, 그 이점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지역경제협력이나 지역경제일체화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정부는 아시아의 공통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평화정착의 길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인들과 함께 경제 글로벌화의 도전에 직면하여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아시아의 발전은 중국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 9월 중국정부는 요녕성 대련시에서 한·중·일 3국의 정부관계자와 학자들이 참가하는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북아국제학술회는 9월 국제회의에 앞서 개최됩니다.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의 문제에서 우리 세지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한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의 희망을 모아 세지역의 협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협력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다음은 일본방문단을 대표하여 가나가와현 현민부 국제과金子教彦 주간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子教彦

방금 소개받은 가나가와현의 가네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회 국제학술포럼 개최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석규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님,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

여 경기도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학술포럼은 2002년에 요녕성에서 개최된 제4회 우호교류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3지역의 새로운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 의 우호교류관계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매우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금년 3월에 새로운 종합계획을 달성하여 그 계획에 따른 국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의 우호관계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학술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금년 10월, 이곳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5회 우호교류회로 이어져 더욱 더 우호협력의 가능성이 확대되는것과, 이것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학술포럼의 다음회는 저희 가나가와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회에 경기도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포럼과 같은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을 가나가와현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이상으로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주제발표에 앞서서 잠시 기념촬영을 갖고자 합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

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에 앞서서 오늘의 행사진행 계획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포럼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행정 등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문사회분과 포럼에서는 한·중·일의 지방정부간 실천가능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분과 포럼이 끝난 후 본 건물 16층에 있는 식당 스카이에서 중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연과학 분과 포럼으로 동북아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상호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오늘의 마지막 분과인 행정분과 포럼에서는 한·중·일 3지역의 상호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문사회분과의 주제발표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경성대학교 오용석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동북아국제학술포럼

제 1 분 과
인 문 사 회 분 과

■ ■ ■ ■ ■ ■

○ 오용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인문사회분과 포럼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개회식에서도 동북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북아 가운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이 3국은 동북아의 중심권으로써, 중심 경제권으로써 앞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블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만이 아직도 이런 경제협력 예를 들어서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을 뛰어 넘어서 각 지방간에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와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 그 다음에 요녕성 이 3개 지방이 그야말로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인 네트워크 말하자면 이코노믹 오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지역발전과 그 다음에 각각의 한·중·일의 경기도 그리고 일본, 중국의 각 지방의 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발표와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중국,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중협력 그 다음에 중국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계신 이수행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계신데 이 자료집의 7페이지에는 한글로 이 논문이 되어 있고 중국어로는 23페이지에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는 3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수행 박사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하더라도 발표는 30분을 넘지 않도록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행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수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제발표를 하게 될 제목은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간에 경제적인 교류협력활성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최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역내 국가간에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간 FTA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북아지역은 역내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국가간에 FTA체결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에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적 경제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3지역간에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발표가 될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 경제협력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에 한국, 중국, 일본간에 경제협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지역간에 교류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진일보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국, 중국, 일본간에 역내 교역이 급증하면서 상호간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제부분, 정부차원, 학술계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지역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교류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을 되짚어보면 동북아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정치적인 역학관계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국가간에 FTA체결과 같은 협력의 틀을 조성하기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지적 경제협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지적 경제협력은 개방형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사이에 두고 지역간에 경제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국지적 경제협력은 크게 연성적인 국지적 경제협력과 제도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매결연 등의 형태를 통한 느슨한 어떤 형태의 교류형태를 연성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으로 이야기되어질 수가 있고 FTZ 혹은 FTA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한 강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국지적 경제협력을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국가간 경제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간 경제통합에 대한 장점은 시장확대, 경제적인 교류협력 확대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단점은 의존적인 혹은 수직적인 본업체계 고착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국가간에 FTA체결 등이 지연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는 바로 국가간 경제통합에 따른 단점 즉 국가간에 수직적인 본업체계의 고착화를 방지한다는 혹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에서의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동북아지역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국지적 경제협력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발생적인 것과 인위적인 발생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발생형태는 바로 기능적인 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인위적인 발생형태는 바로 제도적인 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경제권은 민간기업, 비정부기구가 중심이 된 순수한 경제적 동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써 예를 들면 화남 경제권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경제권은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 상호간에 제도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FTA 혹은 FTZ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멕시코가 나프타에 합류되기 이전에 마길라도라 협력 등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합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능적인 통합이 제도적인 통합으로 발전되며 일부지역 중심에서 국가간 통합으로 발전될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동인에 의해서 경제권이 형성되고 이러한 경제권이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협정, 조약 등에 초보적인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위에서 경제적인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러한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국지적 경제통합의 단계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국가간 경제통합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지적 경제협력의 형태를 보면 일부는 국지적 경제협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국지적 경제협력이 국가간 경제협력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지적 경제협력이 유지되는 경우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성장삼각지대의 예를 들 수가 있으며 국지적 경제협력이 국가간 경제협력으로 발전된 형태는 멕시코의 나프타 합류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지적 경제협력이 일부는 지속되고 일부는 국가간 경제협력으로 발전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 내부 국가간에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경제체제의 차이 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중·일간에 경제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국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한국의 대중국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1990년 1.3%에서 2003년 10.5%로 증가한 반면에 한국의 대일본시장 점유율은 1990년 5.0%에서 2003년 4.7%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1990년 3.5%에서 2003년 12.3%로 증가했으면 중국의 대일본시장 점유율은 1990년 5.1%에서 2003년 20.0%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시장 점유율은 1990년 26.6%에서 2003년 20.3%로 감소한 반면에 일본의 대중국 시장 점유율은 1990년 14.2%에서 2003년 18.0%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수치를 놓고 볼 때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역내교역은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의 대중국 및 일본에 대한 교류협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GRDP는 한국 GDP의 약 21.6%, 인구는 약 19.5%, 중소기업은 3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출이 한국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먼저 경기도의 수출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이며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8%, 대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중국이 경기도의 제1수출대상국으로 급증하였습니다만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경기도의 제1수출대상국을 유지한 가운데 중국이 제1의 수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홍콩, 일본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경기도의 대중국 및 홍콩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수입부분은 일본이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3년 기준 대일본 수입이 약 79.2억 달러로 상당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율 상황을 보면 경기도의 대일본 수입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반면에 대중국 수입은 34.9% 증가하여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투자건수 기준 일본이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24.7%를 차지하여 여전히 미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경기도의 직접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금액면으로서는 미미한 수준이나 투자건수 면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해외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기도의 제1투자지역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경기도의 대 중국 투자가 우리나라 대중국 직접 투자에 차지하는 금액이 약 2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중국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금액면에 있어서는 천진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투자건수 면에서는 산둥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녕성의 경우는 투자건수 기준 두 번째이며 금액기준 약 네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의 대외교류현황 및 혹은 문제점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대중국 교역은 경쟁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의 대일본 교역은 수직적인 분업체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비교해 본 결과 다음 표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무역특화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울 경우에는 수출특화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1에 가까울 경우는 수입특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운 경우에는 경쟁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경기도의 사항이 20개 수출입 품목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만 본 파워포인트에서는 지명관계상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대중국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기계류, 가죽 등 품목이 비교적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지 및 축전지, 의류, 회전기기, 식물성 물질 등이 아주 높은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대중국 교역을 보면 일부 수입특화와 수출특화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상당부분이 경쟁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대일본 상위 10개 수출입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부분만 다소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품목이 아주 높은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재용 장비같은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 0.9로 나타나는 등 아주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대중국 교역관계는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의 대일본교역은 상당부분 수직적인 분업체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지역간에 경제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모색하게 된 필요성을 보면 동북아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간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은 역내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대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대안검토를 통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간 경제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성숙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간 FTA체결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혹은 정치적인 역학관계 등으로 인하여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먼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이후에 한국 및 일본간의 FTA 체결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교역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록 국가차원에 있어서의 경제통합이 어렵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특정의 개방형 거점지역 혹은 비정부기구, 경제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검토를 통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3국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제도적인 접근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방안이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력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 봤습니다. 현재에서 제시된 모델은 거시적인 모델입니다. 먼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의 틀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성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틀 조성에는 지역내의 산업단지, 협회 혹은 공단간 혹은 동종산업간에 협력의 틀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협력의 틀의 바탕 위에 지역간에 자매결연 혹은 우호교류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제도적인 어떤 국지적 경제협력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FTA에 준하는 경제적 공동체 혹은 교류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간에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가지 방안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두 번째는 3지역의 공동브랜드 구성, 세 번째는 3지역간에 물류망 확립, 네 번째는 인적자원 교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 번째는 외자기업 활동에 대한 고충처리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역 행정기관, 연구기관, 기업인을 중심으로 현지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상호간 정보교류의 네트워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 문화나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지역의 공동브랜드 구성입니다. 각 지역의 연관산업이나 도시에 형성된 공통된 이미지를 브랜드로 형상화함으로써 무역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공동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매망 확대에 공헌을 하고 지역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며 민간기업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지역간 물류망 확립입니다. 3지역을 긴밀히 연결할 수 있도록 항공 및 정기적인 해운 항로 신설을 추진하고 물류 인프라구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함으로써 기업이 판매영역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고 물류기능 강화로 각 지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적자원 교류채널 구축입니다. 인적 자원 교류채널 구축은 학생, 학자, 기술자, 기업가 등 인적자원의 지역간 상호 교환방문을 정례화하고 정부소속 노무협력관련 전문부서를 신설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력수급에 비대칭성 개선에 공헌하고 상대국 지역 전문가육성 및 상호이해와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외자기업 활동에 대한 고층처리부서 신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잘 시행되고있지만 현지 외자기업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인적 네트워크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외자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산하에 공개적인 외자기업 활동에 대한 고층처리부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외자유치 활동에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외자기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며 외자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서 지역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외자유치 활성화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간 혹은 정부기업간에 관계개선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연성적인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기업 수요자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연성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추진은 공업단지, 동종산업협회 차원의 자매결연 등을 들 수가 있으며 교류협력의 바탕, 제도적인 국지적 경제협력의 기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수요자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실수요자의 요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기관, 연구기관, 기업간에 공유 카테고리를 형성하면서 최고로 외자유치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용석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광범하고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내에 아주 잘 요약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오신 馮貴盛 선생님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국 동북 하다경제권 협력개발 및 지역경제일체와 전략에 관한 구상인데 여기서 하다 하얼빈하고 대련을 연결하는 그런 발전모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동북지역은 최근에 특히 새로운 중국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에 의해서 동북지방의 노공업지구의 이런 활성화방안 이것과 연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런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녕성은 과거부터 중국의 중공업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동북지방 노공업구 개발은 아마 일본의 기타큐슈 르네상스와 비견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에서 전 정권부터 추진하고 있는 5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에 이어서 동북지방의 개발은 특히 한국경제에도 상당히 큰 그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을 발표해 주신 馮貴盛 선생께서는 요녕성에서 아주 탁월한 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현재는 요녕성 인민정부 참사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요녕성 계획발전위원회 사회과학원 발전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 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馮貴盛

여러분, 저는 오늘 요녕성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북 아학술포럼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국동북경제권 협력개발 및 지역일체화 전략에 대한 구상’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한국, 일본 학자들이 동북노공업지역부흥정책에 대해 매우 관심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다경제권은 동북경제지역의 기점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축입니다. 하다경제권은 하다고속도로와 전철을 주선으로 동북3성의 성도인 심양, 장춘, 하얼빈을 종축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는 동북지역전체의 44.1%인 4704만 명, 토지면적은 동북전체의 15.7%인 12.4만㎡에 이릅니다. 하다경제권은 동북경제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곳으로 전국에서도 비교적 발달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곳은 동북노공업지역의 축소판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품화된 식량 생산지입니다.

시간 제약으로 다음에서 제가 발표할 세 부분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다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상황입니다. 하다경제권이 형성된 시기는 1930년대 중반 일본의 동북지방 강점후입니다. 일본은 요녕과 동북지방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중공업 발전의 기초로 하였으며 현재 심양에서 대련에 이르는 지역인 요남지역을 중심으로 제련, 기계부품, 전력 등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남북 양방향으로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당시 이곳은 중국중공업 최대발전 지역으로 특히 심양에서 대련에 이르는 지역은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건국 후 중국은 동북지역의 기존 공업기초와 교통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북을 중점지역 건설로 설정하였습니다. ‘一五’발전기간 동안의 건설로 하다경제권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최대규모의 중공업지역이 되었습니다. ‘二五’기간 후 다칭유전, 요하유전, 송화유전의 개발로 석유화학공업이 중점건설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경제권은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천연자원인 철광과 석유의 기초위에서 원재료가공업과 가공제조업을 각각 발전시켰으며 전국적 의미를 가지는 전문화된 산업단지를 형성하였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까지 하다경제권의 공업총생산액과 공업부문의 고정자산총액은 중국전체의 5분의 1에 달하였습니다. 주요 공업생산품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아, 원유, 철강, 순면은 50%이상, 생철·강재, 판유리는 4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및 장비공업 역시 중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인 동북노공업기지의 핵심지대로서의 하다경제권 입니다.

두 번째는 하다경제권의 발전수준과 그 위치입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다경제권의 GDP를 보면 2002년말 통계를 기준으로 약 8364.7억 위안으로 동북지역 전체의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하다경제권의 공업화수준은 비교적 높으며 특히 심양에서 대련에 이르는 지역의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은 동북지역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총생산량은 공농업총생산량의 91.2%를 차지하여 심양-대련지역의 공업이 특히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 하다경제권의 주요공업제품생산량은 중국전체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혁개방이후 동북노공업기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발생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하다경제권은 전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원유생산과 정유 및 석유화학품은 전국에서 각각 41.2%, 24.7%,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생산량은 12%, 자동차 및 엔진장비산업은 중국전체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하여 그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하다경제권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하다경제권의 비교우위분석입니다. 첫째, 공업기초가 비교적 튼튼하고, 중화학공업에 비교적 강한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우위는 도시화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것입니다. 하다경제권은 총길이가 천 Km에 이르며 도시는 총 31개로 평균 35km마다 도시가 하나씩 위치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밖에 하다경제권의 비농인구의 비중은 중국전체에 비해 비교적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반이상이 비농인구라고 생각됩니다. 하다경제권의 도시화수준은 약 60%에서 65%로 중국에서 도시화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 비교우위는 에너지발전 조건의 우위성으로, 동북하다경제권은 전국에서 유명한 흑토지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옥수수과 콩의 생산지대입니다. 네 번째는 교통이 비교적 발달하였다는 점인데, 하다경제권은 철도, 고속도로, 수운, 항공, 지방도로 등 다섯 가지 현대화운송방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우위는 과학교육의 기초조건이 비교적 좋아 전문인재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하다경제권은 중국과학교육사업 최대발달지역의 하나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이 모두 105개소, 국가중점 연구소 및 학교가 기본적으로 동북지역에는 하다경제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광물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하다경제권에서는 이미 백여종의 광물을 발견하였고 그중 가채굴 광물은 60여종에 이르러 전체경제권의 광물품종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공업발전에 필요한 에너지광물, 보조원료, 화공건재 및 비금속광물 또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배후지역의 자원 역시 풍부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우위분석이었습니다.

현재 하다경제권은 네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체제와 시스템의 모순이 첨예화한 점입니다. 하다경제권은 동북노공업지역의 축소판으로 계획경제체제하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지난 몇 십년간 체제적 모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국유경제비율이 높아 현재 요녕성내 하다경제권의 국유경제비율은 자산총액기준 약 77%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량기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이 높은 중화학공업과 환경오염문제입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곳은 심양시로, 전국에서도 오염도가 높은 도시이며 일찍이 90년대에 UN에 의해 세계 10대 오염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정화에 대한 노력으로 오염의 모자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파견한 전면조사단이 심양의 환경을 조사하였으며 이미 초기확인을 통해 환경정화의 모범적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석유자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동북지방의 두 주요 유전인 다칭유전과 요하유전은 현재 채굴의 상승기와 최고점이 이미 지났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동북인들의 중요한 절약 문제입니다. 이상이 첫 번째 방면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방면은 하다경제권개발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중간부분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경제권개발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첫째 문제인 개발의 배경분석은 내용이 매우 긴 관계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몇 가지 기지 건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개발은 초기에 4개 현대화산업지대를 건설을 포함합니다. 첫째, 원재료 산업지대 건설입니다. 둘째는 정보화기술을 매개로 하는 현대화 기계전자장비 산업지대 건설입니다. 셋째 산업지대는 5개 국가급하이테크기술개발구-국가개발구는 동북하다경제권내에 대련, 안산, 심양, 장춘, 하얼빈 5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를 기초로 하는 방사형초기하이테크기술 산업지대입니다. 네 번째 산업지대는 무공해식품 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현대화 생산지대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네 가지 산업지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둘째, 약 십년동안의 노력으로 하이테크기술을 기초로 하는 초보단계의 10대 상품생산기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다칭을 중점으로 하는 현대화 석유제품 생산기지를 건설하였고 두 번째로 안강, 본강을 중점으로 하는 현대화 철강제품 생산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셋째로 다칭, 길림, 요녕의 푸순과 요양을 중점으로 하는 현대화 석유화학 및 정제화학제품 생산기지를 건설, 넷째는 대련을 중점으로 하는 세계선진수준의 현대화 대형선박 및 기관차 제조기지-현재 대련의 선박제조능력은 중국전체의 3분의 일에 해당하며 기관차는 중국시장의 50%를 점하고 있음-건설이며, 여섯째는 장춘과 심양을 중점으로 세계선진수준의 현대화 자동차제조기지 건설입니다. 장춘시민여러분이나 여러 학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심양의 현재자동차공업은 요근래 몇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하였고, 특히 세계유수의 자동차회사인 BMW심양은 심양자동차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요녕성의 현재 계획은 심양의 자동차산업을 십 년 내에 전국 5위권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심양, 대련, 하얼빈, 장춘, 안산의 국가하이테크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신소재, 정보설비, 생물제약, 환경설비 등 하이테크기술제품을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하다중북단, 특히 장춘에서 하얼빈에 이르는 구간에서 현대화, 표준화, 무공해농산물 및 가공제품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다남단인 심양대련구간에서 현대화, 표준화, 무공해 과일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며 열 번째는 요녕성 근해에 현대화, 표준화, 무공해수산물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기본적인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은 내용이 길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주된 명제는 일체화에 대한 구상입니다. 일체화 문제에 대해 몇 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하다경제권은 3성을 연이어 위치하고 있어 어떻게 협력을 진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몇 가지 기본구성의 바탕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련을 중심으로 연해에 대외개방구간을 접하고 있는 구간으로 주로 조선, 기관차, 석유화학과 같은 운송설비생산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심양을 중심으로 하는 요녕중부도시군 중화학공업 구간입니다. 작년 요녕성정부는 심양을 중심으로 경제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는 원재료기지 건설이며 다른 하나는 장비산업기지건설로, 현재 요녕성에서 진행중에 있습

니다. 세 번째는 장춘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와 농산물가공구간입니다. 네 번째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는 장비산업으로 주로 발전장비와 석유화학, 농·임산물 및 가공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지역을 건설하여 지역적으로 합리적인 분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경제권개발의 기본시책으로 모두 7개 방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관념과 사유방식의 적절한 전환으로, 개혁과 제도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요녕, 길림, 흑룡강성은 이미 체제개혁을 시작,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어떻게 정부기능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책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후발효과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여 하다경제권을 공동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약형사회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요녕성의 모든 기관이 이미 어떻게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가공할 것인가,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정부는 과학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과학발전관의 핵심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발전관은 현재 세계경제의 발전추세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책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중심도시기능의 조정과 최적화입니다. 현재 하다경제권에는 4개의 중심도시인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이 있으며 이들은 공업을 주도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4개 도시가 도시기능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현대적인 서비스산업을 중점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기능이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기초설비건설을 촉진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북3성은 투자의 하드웨어적인 환경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시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발과 발전의 총체적인 계획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북3성 정부는 동북지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곱 번째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는 동북노공업기지 부흥에 대하여 이미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체제의 포장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동북아노공업기지가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취업문제, 실업문제와 같은 역사적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03년 중앙정부는 100개 항목에 1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노공업기지의 개조를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1000억 위안은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의 전체 은행이자만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과거 동북지역이 국가재정에 납입한 세액의 비중이 매우 커 자체적으로는 거의 남겨두지 않았고,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다. 100개 중점항목 중 요녕성은 62

개 항목으로, 전체자금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는 이미 동북지역을 부흥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여러 학자분들께 소개해드린 논문의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용석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나가와현의, 지금 논문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별책으로 나와 있는 동북아 국제학술포럼 별책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 데요. 가나가와현의 井知之 임해지역 활성화 추진과 주간께서 가나가와현의 케이힌 임해지역의 재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 井知之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나가와현 케이힌 임해부 활성화추진과의 가메이 토모유키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부서에서는 가나가와현 최고의 공업집적지인 케이힌 임해부의 재편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가와현 경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기계, 합성수지제품 등의 제조업과, 전력, 가스, 석유정제 등 중후장대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공장의 국외이전, 또는 기업의 재구조, 리스트럭처링 등의 영향을 받아 산업 공동화가 진행되었고, 또한 1990년대초의 이른 바 버블 경제붕괴 이후 장기불황이 이어져 이 지역을 지탱해 온 제조업의 활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일본 국내 유수의 큰 공장이 100개 이상 존재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이를 지원하는 고도의 가공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도 폭넓게 집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대소비지에 인접하여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활성화가 가나가와현내 경제 재생의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하여 1996년에 가나가와현청내에 이 지역의 재편정비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가 설치되어 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앞에서 경기도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가나가와에도 동아시아의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최근 항공 또는 해운 등의 물류, 또는 인적 교류에 있어 커다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확대 등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있었던 공해문제를 극복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지역의 개요와 저희의 정책 상황에 대하여 하나의 실천적 모델로서 소개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아울러 앞으로 3국의 경제교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케이힌 임해부의 위치는 저희 가나가와현의 동쪽끝, 수도인 도쿄도에 인접한 요코하마시와 가와사키시라는 두 도시에 걸쳐있는 임해지역입니다. 도쿄도와 의 경계에는 다마천(多摩川)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끼고 북쪽으로 곧장 가면 하네다공항, 도쿄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동쪽에는 도쿄만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이 약 6,100ha입니다. 이중 매립지가 4000ha 이상입니다. 이곳 수원지의 면적이 121평방미터이므로 정확히 그 절반 정도와 그 3분의 2가 매립지라는 셈입니다. 매립은 1900년대부터 그림의 노란색 부분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거의 현재의 형

태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전전·전후를 통틀어 제조업의 대집적지인데, 국내외 등의 경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현재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의 상황, 가령 이 지역의 제조업 사업자 수나 종업원 수 등의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모두 30% 가까이 감소하였고 특히 종업원 수는 45%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구조의 변화를 봐도 이른바 제2차 산업은 20%이상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의 공장집약, 또는 중국도 그렇지만 해외이전 등의 움직임의 한편에서 이 지역의 기존공장에서는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 특화, 또는 연구개발의 거점으로서의 전환, 나아가서는 3000만명을 넘는 광대한 인구를 가진 수도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에서 물류배송기능의 입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전 등에 따른 유희지의 총면적은 약228ha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점재하고 있어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하나로 묶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나가와현으로서는 이 지역의 재생을 목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의 재활성화에 의한 고용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시책 전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역의 교통기반 정비입니다. 오래전의 매립지가 중심이며 바다에 면하고 있는 케이힌 임해부에서는 특히 지역을 지탱하는 교통기반이 약하며 심각한 교통지체를 일으키는 등 앞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철도, 도로 등의 교통기반 정비가 이전부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하네다공항의 재확장, 국제화에 맞춘 기반정비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의 투자업적입니다. 기존 공장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지역에서 더욱 고도화를 도모하면서 조업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지만 산업이란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갈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역을 유지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 공동의 다양한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몇 가지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 산업, 케놈 배양 관련 산업, 또는 에코 에너지 관련 산업 등인데 앞으로도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진력하고 아울러 각종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 활동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요코하마시와 가와사키시, 또는 지역의 경제단체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가지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네다 공항의 재확장,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정비와 국제임해산업의 집적 촉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마천을 끼고 곧장 뻗은 곳에 하네다 공항이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은 현재는 국내선만 발착하고 있으며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국제공항의 관계는 정확히 한국의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는 2009년까지 바다에도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어 서울, 대련,

상해, 북경, 타이페이 등 근거리 아시아편을 중심으로 한 국제선을 취항시켜려는 계획을 국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선의 발착회수는 연간 3만회 정도, 여객수는 70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의 이쪽편은 현재 자동차 산업 공장인데 이미 이전이 결정되어 있어 그 적지를 포함한 100ha를 넘는 지역을 재편 정비하는 구상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는 반대쪽 연안과 직접 교량 또는 터널로 연락로를 정비하여 공항에 관련된 기능과 호텔, 쇼핑센터, 물류시설, 연구시설 등 이른바 임공산업(臨空産業)을 집적시켜 이곳을 핵으로 케이힌 임해부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구상을 저희들은 가나가와 구 구상(神奈川口構想), 가나가와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아시아 방면에서 오는 많은 여객의 발걸음을 가나가와로 옮기도록 하면서 쇼핑센터 등의 상업과 물류, 연구개발 기능 등의 복합 시가지 구역, 컨벤션 등의 국제교류기능과 공항관련시설 등의 국제교류, 인공산업 구역 등 4개의 구역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가와사키시도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는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의 파워를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환경관련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큐베이터 기능, 또는 아시아 기업의 유치촉진, 국내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서포트하는 비즈니스센터 기능, 연수기능 등 그 지역에 도입하여 아시아에서 산업과 경제 활성화의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국가의 도시재생정책의 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되어 국가의 규제완화 제도를 이용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이라고 하여 이 지역에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서 신속한 사업인가 및 창업에 드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 제도입니다. 이른바 구조개혁특구라는 것인데 이 지역이 국제임공산업, 물류특구로서 지정되어 현지 향만이 임시로 개칭하는 경우 수수료 경감이나 실무시간외의 통과에 대해서도 체제정비를 하는 등의 특별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에 접속하는 철도망 또는 도로망을 조속히 정비하여 가나가와구의 경제효과를 가나가와현 전체로 넓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산업중 로봇 산업의 집적촉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이란 것은 재해구조 로봇으로서 가와사키시에 있는데 국가의 문부과학성 프로젝트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인 연구자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규제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이 케이힌 임해부에 로봇 관련 산업의 집적·활성화 거점 및 구조(rescue)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세계의 구조센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미국 TV에서 썬더워드라는 방송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화면 왼쪽은 가와사키연구소의 내부, 오른쪽은 개발된 로봇의 하나입니다. 왼쪽의 비행선은 피재지의 상황을 보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정보 수집등을 실시합니다. 사진 오른쪽은 쌍용이라는 뱀 형상의 로봇인데 지진 발생 후 벽돌 더미 속을 돌아다니며 피재자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게놈 바이오산업의 집적축진입니다. 케이힌 임해부에서는 2000년 10월에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이화학연구소, 요코하마 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요코하마 연구소에는 게놈과학, 식물과학, 유전자다형연구, 면역 알레르기 의학 등 4가지 센터가 있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이 이화학연구소를 핵심으로 하여 인간 생명기능의 근원인 게놈 연구와 산·관·학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론티어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일대 연구거점 형성을 목표로 이 연구소를 비롯하여 그와 연계하여 연구, 교육활동을 하는 요코하마시립대학 대학원, 또한 산학연계를 추진하는 산학공동연구센터와 기업가에 대하여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폭넓은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집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은 그 이화학연구소·요코하마 연구소의 외관입니다. 그리고 사진 오른쪽이 요코하마 신기술창조관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관련 대응을 하는 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라고 합니다. 현지 가와사키시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공해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노력한 끝에 그를 해소했습니다만 아직도 가와사키라고 하면 공해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불식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공해의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 대한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고 환경과 산업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와사키 에코탄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는 그 모델로서, 그 공업단지에는 제사업(製糸業)이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도금업 등 10개사 이상의 사업소가 집적해 있는데, 그 각각의 공장과 사업소가 배출물 억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근처의 공장업을 포함하여 이업종간에 연대하여 상호 배출물의 재이용, 재자원화,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자원순환형 공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축으로 하여 공업단지에서 지역 전체로 제로 에미션의 고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와사키시에서는 시내 기업과 진출기업에 대하여 정보제공과 각종 조성제도의 적용, 또는 기업간 연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세이 자원순환형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제로에미션화를 자금, 기술, 인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7년 4월에는 국가의 당시 통상산업성에서 에코탄 지역을 승인받았고, 동시에 가와사키에서는 조례를 기본구상을 책정하여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저희 케이힌 임해부에 입지하는 기존 사업자중에도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의 리사이클 사업을 새롭게 개시하는 등 환경을 키워드로 한 사업의 확대도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에 충분히 배려하고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는 기업과 세계에도 최고 수준의 환경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 존재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룬 선진적인 공업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대응 중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케이힌 임해부는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시작하여 산업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앞서 하네다공항의 국제화에 의한 해외 관광객 증가 등도 고려하여 어뮤즈먼트 기능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책의 하나로, 현재 이 지역에 잠재하는 기업의 박물관이나 견학 등으로 일반개방하고 있는 공장을 네트워크화 하여 관광의 소재로 삼는 산업관광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케이힌 임해부에는 일본의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산업의 집적이 있어서 제조 체험이나 풍부한 근대화 산업유산을 접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체험학습형 관광유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진 왼쪽은 닛산 자동차의 게스트홀인데, 일반 관광객이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닛산자동차는 일본 최고의 자동차업체인데 이번에 본사 기능을 도쿄에서 요코하마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업을 포함하면 이 케이힌 임해부와 가나가와현에 다대한 경제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앞으로는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서 오락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복합적인 어뮤즈먼트 시설과, 또한 이는 국가가 법제화를 해야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현재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카지노 시설의 도입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은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지구입니다. 유원지인데 현재 다수의 어뮤즈먼트 시설은 도쿄와 요코하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산업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어뮤즈먼트 요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항공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운하가 자유롭게 달리고 있는 큰 공업단지는 없습니다. 기업의 호안(護岸)은 현재 원재료, 또는 제품의 반출입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어뮤즈먼트 기능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통기반 정비에 있어 선박 등의 수상교통에 의한 이 운하의 활용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수상교통의 활용은 일본에 많은 지진 등의 재해시에 긴급 수송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몇가지 저희 시책을 소개해드렸습지만 행정뿐만 아니라 조업하고 있는 기업 여러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 여러분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행하는 거점으로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갈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케이힌 임해부를 둘러싼 과제, 문제점과 재활성화의 대응에 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용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각 지역의 활성화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훈 박사님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盧松 단장님 이렇게 두 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이상훈 박사님께서 총괄해서 경기도의 관점에서 총괄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먼저 중국에서 오신 盧松 선생님께서 먼저 본인의 생각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금방 발표되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松 선생님은 지금 요녕성 인민정부 발전연구중심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아마 중국에는 중앙정부의 국무원의 발전연구중심이 있고 각 성마다 발전연구중심이 있는데 발전연구중심은 그 성에 아주 개발에 관한 이런 연구를 총괄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중요한 연구단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盧松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松

저희 정부발전연구중심은 성정부에 소속된 한 부문으로 일종의 관급 연구기관입니다. 사실 이곳은 정부의 외부브레인으로써 이곳에서 하는 업무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주제발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의 신분은 평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기술적인 원인으로 주제측과의 커뮤니케이션상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여 발표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과 발표 자료가 이번 포럼의 인쇄물에서 빠져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왕 사회자께서 이렇게 평가와 토론의 기회를 주셨기에 저는 방금 전 亀井知之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亀井知之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저는 일본 京浜지역이 현재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고도화 방면에 많은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京浜지역이 나타내고 있는 산업 공동화와 같은 현상에 대해 매우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일본 京浜지역과 우리 요녕성은 현재 구조조정과 산업구조고도화라는 과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고도화의 내용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京浜지역은 현재 공업화에서 후공업화로 나아가는 단계이나 요녕성은 현재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하는 공업화중기단계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京浜지역에서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요녕성에서는 현재 발전하고 있는 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京浜지역과 요녕성의 공업화발전 수준은 확실히 다른 단계에 놓여있으며 요녕성의 공업화 과정은 여전히 京浜지역에 비해 상당히 늦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 한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京浜지역과 요녕성의 경제발전의 서로 다른 위치는 우리들에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이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동북부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녕성은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요녕성의 경제총량은 전체 동북3성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녕성은 동북3성에서 유일하게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요녕성의 여러 항구들의 총물동량은 2억톤에 조금 못미치는 1.9억톤에 이르렀습니다. 요녕성의 전략적 위치는 전체 동북3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녕성의 부흥계획에 따르면 요녕성의 최근 산업발전목표는 두 개의 기지건설과 세 개의 산업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개의 기지는 바로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를 대표로 하는 중요 원재료생산기지과 선박, 항공기, 기관

차, 제련설비, 화공설비, 고속제어장비, 광산설비를 대표로 하는 중대장비제조기지입니다. 세 개의 산업으로는, 첫째 농산물가공업, 둘째 IT산업을 대표로하는 하이테크 기술산업, 셋째 현대물류를 대표로 하는 현대 서비스업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京滬지역의 발전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이곳의 항만 조건을 완벽하게 개선하여 현대물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녕성이 京滬지역의 경우에서 벤치마킹해야할 점입니다.

저는 京滬지역의 산업공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제조업이 현재 해외로 진출하는 것으로 중국으로의 이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일본 제조업의 제조상이 획득하는 이윤이 꼭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미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무역흑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신의 통계에 따르면 사실상 중미 무역흑자는 상당부분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중국내에서 중간재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일부 중국내 공장에서 획득한 것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투자상들에게 귀속됩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일본의 산업공동화현상의 발생은 취업문제가 걱정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취업공간은 아마도 축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상황은 아마도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동북3성의 시·현은 산업의 상호보완면에서는 확실히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의 요녕성에 대한 투자를 보면 일본은 두 번째, 한국은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요녕성에 대한 투자는 일부영역에서 축소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액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녕성의 일본, 한국과 수출입무역을 보면 대일본이 첫 번째,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보든지 한·일 양국은 모두 요녕성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써 아마도 한·일속에 중국이 있고, 중국속에 한·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우위를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는 윈-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녕성은 과거나 미래 모두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기업의 요녕 노공업기지 개조와 부흥계획 참여를 환영하며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녕성은 중국의 유명한 중화학공업기지로써 아마도 일본의 北九州 지방에 필적할 만한 곳입니다. 특히 국유기업의 구조개선책 중 하나인 투자주체의 다원화과정에 일본과 한국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유기업 구조개선에서 중국정부는 외부에 대문을 이미 활짝 열어놓고 있으며 외자의 국유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나 M&A에 대해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제조업, 전자산업, 농산물 생산 및 가공·수출 등 방면에 이르기까지 협력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동북부흥전략의 실시로 동북, 특히 요녕성은 계속해서 중요한 항목의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국제항목인 중앙정부의 동북지역 국제발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 실시될 것입니다. 제1차 항목의 자금은 약 700억 위안으로 요녕성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0%인 400억 위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1차 국제항목이며 제2차 및 제3차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대체적으로 석유화공과 장비제조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정보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주요항목을 실행하는데 있어 우선 한·일 양국에 먼저 문을 개방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개방 일정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보험회사,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일본 및 한국 금융기관들이 요녕성의 심양, 대련과 같은 중심도시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교류협력항목인 여행관광업에 관하여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 요녕성에 소재한 5가지 인문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개 유적은 각각 심양고궁, 심양북릉, 심양동릉, 푸순의 북릉(撫陵)과 본시(本溪)시의 우뉘산(五女山)입니다. 우뉘산은 아마 한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고구려민족의 선조가 거주하던 지방일 것입니다. 또한 요녕성에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루따오(葫芦島)시의 九門口水上長城이 위치하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은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의 중국 각 성별 분포비율에서 요녕성은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광업 등 영역에 대한 협력 공간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발표가 좀 길어졌습니다. 사회자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용석

그 다음은 이어서 지정토론자로는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상훈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상훈 박사님은 이 직전까지 여기 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서 일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상훈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 이상훈

감사합니다. 오늘 3개국 관련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 관심사를 같이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많이 배웠고 많은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발표하신 순서대로 몇 몇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이수행 박사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FTA가 추진이 되면서 어떤 수직적인 분업체계의 고착화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간의 어떤 경제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간이라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소위 제도화된 FTA추진이 좀 본격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진행절차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당히 국가간 통합이 어려운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과 어떤 이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왜 경제통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경제통합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역외국 소위 역외국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FTA가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발전 단계도 다르고 산업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북미자유구역, 나프타 문제입니다. 나프타 이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행정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 나프타로 인해서 어느 국가가 이익을 봤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오히려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국가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FTA 다자간 협정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WTO체제에 다자간 협정체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이 개발단계 어떤 발전단계들이 다양한 많은 국가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막상 당사국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간, 쌍무간 협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FTA추진이 의외로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프타로 인해서 북미자유구역 나프타 같은 경우 멕시코는 교역량이 120%, 5년 동안에 120%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경우는 약 3% 정도 증가한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산업발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는 최근에도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미간에 지금 한국과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 한국의 어떤 경제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통합은 그동안 요원한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만 최근에 스크린쿼터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특정한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급진전되어서 오히려 역으로 미국측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통합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오히려 역진전되어서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3개지역, 요녕하고 경기도 지역하고 가나가와 지역이 서로 다른 레벨의 다른 단계에 다른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의 어떤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굉장히 단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단축되고 있고 기술의 표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단계적으로는 국지적인 협력을 통해서 통상을 증진시키고 내용을 보완하고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통합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을 전제로 해서 지금 미리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중국 동부하다경제권 협력개발 및 지역경제 일체화 전략구상 馮貴盛 선생님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다경제권 지역이 동북3성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경제지역이고 전국에서 비교적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고 인구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역시 4,700만 이상이 되는 지역이고 동북3성 총인구의 44%를 차지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산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희 경기

지역에서 봐서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기계장치, 석유화학, 철강 이런 내용이 전국 최고의 중화학공업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를 1930년대 이후 철강, 석유를 기초로 한 원자재공업과 가공업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산업중심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발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지역 하다경제권 지역은 아직도 중후장대.

(테이프 뒷면으로 넘어감)

공업지대의 쇠퇴는 어느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도 시화산업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근대화 시절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가 쇠퇴화되고 요즘은 각종 오염이라든지 환경문제가 야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떻게 고도화를 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대체산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을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을 어떻게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체산업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점에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향된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활력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 뭐 최근에 들어와서 기술 이런 부문들이 어떤 경제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생산요소로 역할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는 여기에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이외에 또 하나를 저는 포함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활력이라고 하는 요소를 저는 넣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구미경제의 경우 보면 소득도 개인당 GDP도 높고 전체적인 국민수준도 높습니다만 산업시찰 가서 보면 무엇인가 모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뭔가 침체되어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연구개발을 합니다만 대학에를 가 봐도 학생들이 취업문제로 활력이 없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저는 활력, 지역경제의 활력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활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화학공업이 시기적으로 봐서 산업발전, 공업의 발전단계로 봐서 결코 뒤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경우는 한국의 경우에서 이미 사례를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위기, IMF 경제위기 시절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할 때 그래도 역시 그러한 실업을 상당한 부분 홀딩, 보유를 해줬던 부문들이 전통적인 부문에서 상당한 부문을 오히려 실현해 줬다. 오히려 가장 많은 실업의 고통을 느낀 것이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이 부문 소위 사무직 중심의 이런 부문에서 오히려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소위 저희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만 어떻게 변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통적인 부문에서 그러한 흡수력 어떤 경제의 탄력을 오히려 제공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공급의 문제인데 상당한 전문인력이 있고 일자리창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산업부문을 보니까 서비스부문, 사업화 단계로

아까 盧松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융문제, WTO에 약속한 내용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결코 서비스부문에 의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구조가 전반적으로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구조조정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울수록 철저한 재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한 뭐 이것은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후에 부흥한 전단계에서 오일쇼크 등 그 이후에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었습니다만 역시 그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연구개발에 가장 치중했던 이런 사례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하다경제권 지역 중에서 흔히 간과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농산물 관련된 부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메릴린치라든지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의 농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특히 식료품 콩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소위 얘기하는 곡물대란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국제시장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특히 아까 무공해농산물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지역내에서 특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가나가와현에서 오신 龜井 주간님의 케이긴 워터 프론트 디스트릭트 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동안 굉장히 경제중심지로서 중공업 중심지였던 지역들이 그리고 특히 임해공업지역, 바닷가의 임해공업지역이었던 지역들이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리스트럭처링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서 오는 어떤 산업공동화문제 이러한 문제는 특히 경기도지역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옮겨가다 보니까 어떤 수도권지역 뭐 경기도지역도 수도권지역입니다만 소비지의 인접한 환경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있는 내용을 뭐 바꾸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역할을 했었던 산업부문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이미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내용이 그 부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3차 산업, 아까 말씀하셨던 쇼핑센터라든지 에코타운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역시 산업지대는 산업지대 이미지로서 산업지대의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락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타 위락시설 내용 같은 것은 굳이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역시 똑같이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서 뭐 미나토 미라이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리스트럭처링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역에 대한, 산업지대에 대한 리모델링 리스트럭처링을 지역내에서 한번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경기도지역도 같이 닦친 문제기 때문에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염려만 해서 해결책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뭐 고도화하고 첨단화하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내용을 한번 판단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용석

이상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여기에 직접 지정토론자가 아니신 분 가운데서 오늘 발표된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싶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너무 길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리도 좀 할 겸 그 다음에 발표자들은 지금까지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의견이었고 큰 질문은 없기 때문에 플로어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다른 질문들을 더 받아보고 종합해서 발표자들이 의견 있으시면 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하실 분 손을 들어 주셔도 좋고 그대로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자기를 간단하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라든지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구 없으니까 내가 짚막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문정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다경제개발 내지는 동북3성개발 프로젝트 안에 지금 송화강이 장춘을 거쳐서 길림을 해서 하얼빈으로 해서 흑룡강으로 합류를 하는데 앞으로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서 송화강 물을 길림성, 요녕성을 거쳐서 발해로 뿜아내는 그런 프로젝트는 동북3성에서 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고 그 계획하고 관련해서 발해오염문제,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건 좋은데 발해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이미 아시다시피 황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북한이 개발하면 압록강, 대동강이 폐수를 배출하면 발해에서 잡는, 황해에서 잡는 고기는 머지않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잡아도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중시를 하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일본은 이미 공해배출산업을 저개발국가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저개발국가에 이미 다 이전을 하고 있고 비교적 공해배출이 적은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경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또 해외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지 그것 짚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용석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나와 계신 우리 김한섭 담당관님 뭐 아니면 우리 신양현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철...

○ 이재철

짤막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경기도의 국제통상과의 아주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철 사무관입니다.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들이 일본의 사례, 중국의 사례도 좋지만 지금 다루지는 주제의 범위가 향후의 동북아 3지역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가장 근접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廬松 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연구원님, 중국에서 발표하셨던 사회과학원의 연구원님하고 그 다음에 가네코 주간 아니 임해부의 주간님 발표하셨던 두 분께서 향후에 당신께서 발표하셨던 그 내용에다가 향후에 어떻게 하면 동북아 3지역이 자기네 모델을 갖고 3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더 부가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오용석

감사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 우리 조용래 박사님, 뭐 별 얘기 없습니까? 그러면 발표하신 선생님들, 우선 이번에는 좀 거꾸로 해서 일본에서 오신 龜井 선생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 龜井知之

그러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른바 중후장대형 산업, 지금까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공해를 불러온 산업이라는 것이 공해배출이 적은 산업도 해외이전 시키는 것인가 하는 뉘앙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후장대 산업, 이른바 에너지형 산업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존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부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산업을 기존산업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에너지형 산업도 신에너지와의 연계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어갔으면 하는 희망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른바 제조업 류에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흡수할까 하는 문제에서 보면 역시 소위 서비스 산업, 서비스 경제, 제3차 산업이라는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케이힌 임해부에 어떤 것이 가장 잘 맞을까 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모델사업, 아까 설명한 모델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싹이 나는 것도 있고 싹이 나지 않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도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고, 어쩌면 싹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중에서 한 두 개라도 고용흡수력이 있는 새로운 산업이 그중에서 자라난다면 하나의 성공사례로서 그것을 전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하며, 그러한 산업을 해외 쪽으로 이전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의 사례가 한중일 이 3개국 3지역에서 어떻게 발전해나갈까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자유경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이 이른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전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른바 자유경제 속에서 한국,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상호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형태다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희망은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용석

그럼 다음에는 중국에서 오신 펑 선생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馮貴盛

송화강의 홍수조절문제는 일찍이 신중국 성립 이후 중앙국가수리부송라오위원회가 제출한 북수남조공정에 전략적 틀이 성립되었습니다. 송화강은 길림성의 두 번째 송화강과 흑룡강성의 치치하얼부근에서 합쳐지고 년강(嫩江)과 다시 합쳐진 후 송화강이라고 불리우며 하얼빈을 통과하여 바다로 유입됩니다. 북수남조공정은 크게 길림, 요녕, 흑룡강서부, 마지막으로 요하를 거쳐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수남조라고 불리며 요녕성부분의 수량은 41억^{m³}정도입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장강의 물을 동·서·중부선을 통하여 북방과 화북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공정이 진행 중이라 다른 곳에 충분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녕성은 현재 북수남조공정에 대하여 길림, 흑룡강성과 이미 협의를 하였고 흑룡강성의 년강 부근에서 큰 저수지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요녕성으로 하여금 40억^{m³}의 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이공정은 뒤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요녕성의 수력자원공급문제 해결방안은 요녕동부-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으로 연평균강수량이 약 1200^{mm} 정도임-의 물을 중부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약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억^{m³}의 물을 조절하여 요녕성 중부도시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용석

그러면 이수행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행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수행입니다. 먼저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사례 부분 그리고 왜 그러한 것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에 관련한 이론을 가진 분석을 하면 거의 대부분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옵니다. 특히 방금 ()들이 말씀하신 실무적인 차원과 역외국가에 관한 차별문제 이런 것들은 FTA체결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량분석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오는 손실부분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방금 제시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점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수평적인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소국의 후진국과 선진국의 대국의 경제통합과 소국의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국의 경제통합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른 상황하에 동일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례를 찾아보면 멕시코와 미국의 경제통합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성장삼각지대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국지적인 경제협력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나프타로 합류가 됐습니다. 문제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성장삼각지대는 아직까지 경제통합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론적으로 가면 이러한 부분은 끝이 없을 겁니다. 일부지역에서도 유럽 통합이후에 유럽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제가 여기서 동북아지역에서 이와 같이 국제경제협력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멕시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싱가포르 상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조할 모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시했구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록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반도라든지 일본, 중국의, 중국은 좀 다릅니다. 이미 중국은 경제특구가 시행되면서 분명히 일부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독립적인 어떤 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직 그러한 상황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리고 제도적인 그러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게 제도적인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현재 역내 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3국이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즉 하기 쉬운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서 우리가 대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기업인들이 진출할 때 혹은 최근에 중국기업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있는데 많이 올 때 그때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특히 지방정부는 브랜드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 왔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알지만 경기도에서 왔습니까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지역 같은 경우 중국에서 왔습니까하면 알 수 있지만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까하면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간에 어떤 공동브랜드를 구성해서 상호간에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등등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비록 이론은 국지적 경제협력 모델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어려우니까 하기 쉬운 그러한 것들부터 형성해서 그 다음에 경제권을 구성하고 만약에 분위기가 성숙되면 차츰 차츰 제도적인 그러한 이론적인 어떤 협력모델로 접근해 가자하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경제통합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역차별이라든

지 이런 문제를 볼 때 시급히 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 중국의 입장을 바라보거나 혹은 한국이나 일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동남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한·중·일간에 FTA체결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오용석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이 발표와 토론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발표자들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발전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티 링퀴지 디벨로프먼트 벨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도시간의 연계성, 중국에서는 하얼빈과 대련간에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에서는 요코하마와 가와사키를 잇는 이러한 발전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발전을 일궈나가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해주셨는데 다만, 중국의 경우는 두 가지 각각 특징적인 모형이 나타나는데 중국은 하얼빈성과 요녕성이 연계가 되는 말하자면 인터리조널한 말하자면 또는 인터프로린설한 이런 벨트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요코하마와 가와사키가 인트라리조널 또는 인트라 프로펙처럴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간의 연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더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보면 우리가 동북아중심 이걸 얘기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고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예를 들어서 평택항 같은 것이 제외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뉴스레터에 권두언을 쓰면서 오늘 발표를 해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일본쪽에서 발표한 규제개혁특구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거기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가와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다른 지방과 차별화를 시켜서 이 경기도도 규제개혁특구를 마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우리가 지방 국제화 이런 얘기를 합시다만 저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시다만 위생조개국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이건 제가 지방국제화 잡지에 역시 권두언으로 역시 한번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중국말로 하면 웨이성 자오카이 치오이 바로 이 말인데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일찍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차별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역이 한 군데 뿐 아니라 물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상호 보완성을 높여가면서 이런 차별화를 이뤄 나가는 그러면서 서로 네트워킹의 경제적인 효과를 일궈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장장 두 시간동안 아주 훌륭한 발표와 그 다음에 좋은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여러 선생님 그리고 플로어에서 함께 이 자리에서 좋은 질

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다른 세션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회자 인문사회분과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인 자연과학분과 포럼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2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텝의 안내를 받아서 오찬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동북아국제학술포럼

제 2 분 과
자 연 과 학 분 과
■ ■ ■ ■ ■ ■

○ 이동근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이 분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분과에서는 발표자가 세 분 그리고 토론자가 두 분이 됩니다. 발표자는 禹穎子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이 발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加藤陽一 일본 가나가와현 환경과학센터 연구원이 발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국측은 성현찬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토론은 유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토론은 아까 발표하신 일본 가나가와현의 加藤陽一씨와 그리고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曹曉峰씨께서 토론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표자 한국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성현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성 박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또 한 분은 유현석 박사님, 일본 큐슈 대학에서 공학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두 시간이기 때문에 발표자는 한 분당 20분 정도 조금 길면 25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는 10분 내외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우선 발표를 중국의 禹穎子씨와 다음 일본의 加藤陽一씨 그리고 한국의 성현찬 박사님 이 세 분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부연구원으로 계시는 禹穎子씨 부탁드립니다.

○ 禹穎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녕사회과학원의 禹穎子입니다. 저는 이번 동북아국제학술포럼에 참가하여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중·일 환경협력의 현황분석과 전망’입니다.

20세기 말 이후 인류가 의지하고 있는 지구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및 소비,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로 인해 전세계적인 자원 부족현상을 발생하였고, 환경오염과 생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매우 빠른 지역 중 하나로, 장기간의 고속 경제성장은 각종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자연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에는 황사, 산성비, 수해, 자원 고갈, 도시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할 만한 일은 최근 환경과 발전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이 동북아지역 각국정부와 비정부기구들에게 신중히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중·일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국가간 환경협력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협력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동북아 국가들에게 ‘환경공동체’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범세계적인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환경산업과 환경시장 그리고 지역경제협력 발전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중·일 3국의 환경협력과정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우선 한·중·일 환경협력의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협력에서 얻

은 결과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종합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중·일 환경협력의 배경으로 배경의 첫 번째는 각국이 처한 국내 환경 문제와 환경협력의 절박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국내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도시의 환경문제로 여기에는 주로 생활쓰레기, 공업소비품 쓰레기 등이 포함되며 다른 하나는 농촌의 환경문제로 여기에는 주로 경지면적 감소와 퇴화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황폐화된 토지면적은 이미 262만km²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신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대량의 농경지가 공업용지나 주택용지로 전환되었고 이는 대규모 경지면적 감소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위생상태 악화와 질병의 유행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협력의 두 번째 배경은 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협력의 추진입니다. 국내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환경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이미 지역 또는 국제 환경문제로 발전하고 있는데 첫째, 생태환경문제의 총체성. 둘째, 국내환경문제의 외부 정(+)효과와 부(-)효과. 환경문제의 총체성으로 인해 국부적인 환경문제는 전체 범위내에서 외부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생태환경 악화는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동북아의 황사현상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다른 면에서, 국부적인 생태환경의 처리는 다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그렇습니다. 동북아의 환경문제는 이미 부분적으로 지역화와 국제화 범주로 발전하였고, 특히 지역적 환경문제는 각국을 '오염공동체'로 끌어 들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동북아 지역적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황사와 관련된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황사는 강풍으로 지면의 많은 먼지가 공중으로 날려 시야거리가 1,000m 이내로 되는 재해성 기상현상으로 황사발생은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황사문제는 다지역적인 환경문제로 우선 그 기원을 보면 국제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국이 10년 동안의 감시결과로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몽고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황사의 기원지이며, 중국의 신강·감숙·내몽고는 이보다 더 강력한 기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황사의 발생원인에서 보면 동북아지역의 생태환경악화와 관련된 요인은 물론 지구의 기온상승, 건조화, 사막화 등 전세계적인 범위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지역의 황사는 단순히 중국의 기후와 지표면상의 모래에 인한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소위 중국에서 기원한 황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사가 동북아 및 세계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면, 중국과 몽고에 대한 영향은 제외하고도, 북한, 한국,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동북아지역의 두 번째 환경문제는 대기오염입니다. 최근 동북아지역의 빠른 경제발전과 공업화 진전으로 국민생활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고 이에 반하여 공업 및 생활 폐기물 발생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 에너지구조의 왜곡도 심각하여 석탄의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세 번째 환경문제는 해양오염입니다. 대부분의 동북아국가들은 바다에 접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해양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국의 근해환경 악화. 중국을 예로 들면, 2001년 전국근해연안의 수질은 2급과 4급 이상이 대부분이며 각각 28.0%와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근역의 오염정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황해의 오염정도는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발해(渤海)의 잉커우(營口), 판진(盤錦)과 진저우(錦州), 동중국해의 장지양커우(張疔口), 항주만, 상산(象山)항과 산먼(三門)만, 남해의 러칭(樂清)만, 취앤저우(泉州)만, 구룽강과 주하이 등 중점지역의 오염정도는 비교적 심한 편이고, 수질은 모두 4급을 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루(葫蘆)도, 장도, 메이저우(眉州)만, 난통(南痛), 산야(三亞), 하이커우(海口), 단둥(丹東)과 장해 인근 수역의 수질은 비교적 좋습니다.

둘째, 공해(公海)오염과 환경마찰. 동북아시아의 동해, 황해, 동중국해는 공해에 속해 있으며 이 지역 또한 오염의 예외지역은 아닙니다. 오염의 주요 경로는 인근 국가들의 통제되지 않는 폐수 배출, 해상운송중인 선박에서 방출되는 쓰레기나 산업폐기물 심지어 핵폐기물의 배출 등이 있습니다. 그중 동해 근역의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데 일본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 동해 해역에 서식하는 조(鳥)류의 간세포에 축적된 카드뮴 함량이 매g당 147 μ g이나 되며, 어류의 간세포에 축적된 수은 함량은 매g당 0.26 μ g으로 서태평양난류시대에 비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동해에 폐기하는 핵폐기물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인근 국가들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셋째,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자원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공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산자원이 비교적 풍성한데, 특히 동해는 지시마(千島)한류와 일본난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산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해상의 자원은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어선들이 몰려들어 과도한 포획행위를 하여 수산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의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해양방위군의 어선나포 사건도 수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밖에 영토 및 영해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각국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세 번째 환경문제는 오염물질의 비합법적인 이송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비합법적인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것에 대해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송되는 쓰레기들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국가인 일본, 한국은 중국의 주요한 쓰레기 수입원천으로 다량의 노후된 의복이나 전자제품 쓰레기가 한국과 일본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홍콩과 광둥 등지를 통해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상적인 수입절차와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것들로 한·중·일 3국은 공동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합법적인 오염물질 이송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의 현황입니다. 한·중·일 환경분야 협력의 현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쌍무협력과 한·중·일이 공동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입니다. 쌍무협력의 첫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환경협력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환경협력은 규모·내용·범위를 막론하고 중국과 세계 여러 국가간의 환경협력에 비해 더욱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일본정부의 중국에 대한 자금흐름의 중심이 80년대 이후 경제영역에서 기초설비영역으로 전환되었고 90년대 이후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사회발전영역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국제적인 수송문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배기가스 배출문제, 1998년 제정된 일본이 중국에 방치한 생화학무기의 폐기와 관련한 환경기준의 문제 등 환경 분야의 문제해결과 이익추구는 쌍방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중·일의 환경협력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중·일 지방정부간 환경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중·일 민간부문의 환경협력입니다.

쌍무협력의 두 번째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협력입니다. 현재 한·중 양국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포괄적인 오염통제와 자국의 환경산업 발전에 대한 것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양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한국으로의 확산, 둘째 양국공통수역인 황해의 오염, 셋째는 한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중국내 비합법적인 이송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 폐기물의 중국내 비합법적인 이송은 최근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은 한·중 양국의 공통 관심사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협력 현황의 두 번째 부분은 한·중·일이 공동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첫 번째는 한·중·일 3자간 협력입니다.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회의는 3국간 쌍무교류와 다자간 교류의 기초위에서 제도화된 장관급 환경문제 협의 및 협상방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중·일이 공동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평양행동계획, 둘째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 셋째 두만강삼각주경제개발구의 환경보호 활동이며 1992년 UN은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몽고의 요구로 두만강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이 일대를 앞으로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넷째는 동아시아 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입니다.

세 번째 큰 주제는 한·중·일 3국의 환경협력의 효과와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협력의 효과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쌍무협력 및 다자간 환경협력은 동북아국가들의 환경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고 동시에 의식을 점차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각국이 직면한 국내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며, 동시에 점점 심각해지는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자,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이러한 쌍무 및 다자간 환경협력은 이미 국가간의 모순과 범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규범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 ‘서북태평양행동계획’, ‘대기오염장거리운송’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무 및 다자간 환경협력 과정에서 다음이 같이 일부 문제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한·중 양국의 협력과정에서 상대국의 국내환경정책과 발

전경협에 대해 좀 더 심화되고,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환경협력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것입니다. 한·중 환경협력은 상당부분 양국의 경제발전상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중의 환경협력 역시 발전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특히 대중국 투자와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환경 상황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고, 세부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의 환경 상황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중 환경협력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하여, 앞으로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이 중·일, 중·미, 중·유 환경협력과 같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일 협력에서 중국은 협력을 실시하는데 있어 사업에 대한 자금투입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효율성 향상과 협력의 질 향상에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에서는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세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협력은 국가협력에 비해 실행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따라서 3국은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녕성과 경기도, 가나가와현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세 도시가 중국정부의 동북공업지대 부흥의 전략을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환경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요녕성의 상황에서 볼 때, 요녕성의 환경문제는 비록 최근 상당히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공업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환경오염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호적 관계에 있는 세 지역이 환경협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공업기지 부흥전략에서 세 도시는 보다 유리한 협력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력의 방법에서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여 협력의 통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전기와 개발, 기술과 정보의 민간교류, 협력연구,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3국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발전상태에 따라 나름의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초위에서 관련된 국가와 지역이 취하고 있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격려함으로써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환경관련 기술의 전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재산권의 보호, 교류의 장애물 제거, 합리적 기술이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중·일 3국은 공동 노력하여 ‘동북아환경공동체’ 성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북아환경공동체를 성립하는 것은 지역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이 핵심이 되는 동북아환경협력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간의 발전과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3국은 공동노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환경공동체를 성립하고 다양한 방면의 환경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의 환경협력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하겠습니다. 한·중·일의 환경협력은 정치·경제협력과 서로 보조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협력과 정치·경제협력과의 관계에서 볼 때, 환경협력은 정치·경제협력과 달리 각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간 관계 개선의 점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협력과 경제협력은 상호인과관계에 있어 환경협력은 경제협력의 전제인 동시에, 경제협력의 성과가 되며, 둘의 협력은 풍부한 자금과 기술이 제공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환경의 독립적인 의미에서 볼 때, 환경협력은 공기정화, 수질개선, 해양보호, 삼림 및 초원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동북아지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환경협력은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국가 환경협력은 먼저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그리고 정치협력과 점차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중국의 동북공업지대 부흥 전략과 두만강경제개발구계획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또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경제 및 자원경제 그리고 기타 유형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동북아경제권은 장차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환경권 역시 세계 환경 개선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근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22분 정도 잘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禹顛子씨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으면 동북아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많은 명패를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비슷하게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발표를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끝에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그 문제가 무엇이나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의 필요성 그리고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협력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과연 사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 구체적인 인간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도시발전이나 아니면 환경발전에 외국의 특히 서구의 모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서구의 모형이 아니라 각 국가의 모형을 존중하자. 즉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국가모형을 충분히 존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우리 동북아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환경문제는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하는 지방의제21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한·중·일 3국의 지역간에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역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동북아의 환경공동체가 추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도나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 이야

기였습니다. 이 끝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협력관계가 계속 잘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표는 일본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가나가와현의 환경과학센터의 加藤陽一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는 가능한 통역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 加藤陽一

제가 일하는 곳은 정책제언을 하는 곳은 아니고, 이를테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원 인물질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시설입니다.

그러면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다이옥신류의 측정과 현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본에서의 대기오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최초로 나온 것이 1890년경 도치기현의 아시오에 있는 동산의 광독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피해와 농작물 피해입니다. 그 후 다이쇼 시대인 1880~1920년에 걸쳐 방적이나 요업, 기타 서양에서 들어와 근대산업이 일어나던 중 1880년에 오사카부에서 공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가장 최초입니다. 그 후 1955년~1965년, 이른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오전 분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임해지구를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달하여 유황산화물과 배연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어 심할 때는 시정이 30m~50m,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응하여 1967년에 공해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그 이듬해에 대기오염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1966년경 임해부의 사진인데 굴뚝에서 상당히 많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분진으로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오염방지법이 시행되자 우선 유황산화물의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969년에 제정되었다가 1973년에 다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비슷한 무렵인 1970년 7월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광화학 스모그 피해가 보고되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환경청이, 현재는 환경성으로 격상했습니다만, 발족함과 동시에 유황산화물에 관하여 배출농도규제만 있었던 것을 총량규제, 배출량을 전체 지역에서 유황의 배출을 얼마나 허용할까 하는 총량규제가 여기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이산화질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경기준에서 배출기준이 제정되었고 1981년 유황과 같이 총량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공장을 이른 바 고정발생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나오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가능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도시부에서 고속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 관하여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자동차에 대하여 1992년에 자동차NOx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황산화물에 관해서는 현상 환경기준을 거의 충족했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만성 독성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컨대 저농도로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리스크 대책이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로서 234가지 물질을 선정하여 이중 우선 대응물질로서 22가지 물질이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그러한 위험물질 이외에도 어느 정도 사용량이 많은 물질에 관해서는 PRTR법이라는 것으로 기업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환경에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를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를 공표함으로써 주변을 포함한 주민, NPO와 커뮤니케이션을 취함으로써 사회적인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이옥신류가 소각시설에서 상당량 배출되고 있으며 소각장이 생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생기는 지역이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1999년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장소와 같은 장소의 1999년도 사진인데, 지금 보는 바로는 상당히 깨끗해졌고 하늘도 많이 파랗게 보여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정해져 있어서 연속감시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이라고 여기에 실려 있는데, 이는 현지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1시간 간격으로 1시간당 얼마정도의 평균농도가 되는가를 측정하여 그것을 전화회선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가동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연속감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오염물질이면서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있다거나 그에 준하는 물질, 벤젠이나 다이옥신도 포함하여 기타 지침치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측정에 대하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캐니스터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여 GC/MS, 즉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장치라는 것을 사용하여 연12회, 그리고 유도체화포집GC/MS법이라는 것으로 3종류, 이것은 연4회, 하이볼륨 에어샘플포집으로 측정하는 것이 연4회, HPLC라는 것은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장치로서 벤조피렌, 그리고 원자흡광으로 중금속 5종류, 그리고 GC/MS방식으로 다이옥신류, 건식수은포집원자흡광측정으로 연4회, 수은 및 기타 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캐니스터 GC/MS분석법은, 대상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른바 VOC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질로서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모노머,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에탄, 1,3-부타디엔,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그리고 벤젠 등 9가지 종류를 이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캐니스터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공상태로 만든 관에서 시료채취장치, 여기가 진공상태의 관이고 압력계가 달려있습니다.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어서 1분간 3밀리의 양을 공기를 통과하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시료의 용량이 대개 6리터인데 1분 동안에 3밀리로 만 하루 동안 두면 4,320cc가 되므로 대개 80%가 이 안으로 환경시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캐니스터라 불리는 이 관에는 제로가스, 다시 말해 깨끗한 질소를 넣어서 압력을 약 2기압 정도까지 올립니다. 그것을 일정량 취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160도까지 냉각하여 일정량 400cc정도 트랩합니다. 그 다음에 밸브를 절환하고 이어서 모듈2 쪽으로 보냅니다. 20도 정도로 올려서 이쪽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트랩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물이나 불순물을 어느 정도 정제하여 불필요한 것은 여기 모듈1에서 트랩

한 채로 VOC라서 측정하는 것만을 모듈2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듈2에서 트랩한 VOC류를 이번에는 180도에서 탈착함으로써 마이너스 160도로 냉각한 모듈3으로 목적물을 트랩하여 최종적으로는 100도에서 모듈3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GC/MS의 장치 중에 시료를 보내는 형태로 샘플링한 후, 이 부분 자동적으로 정제하여 GC/MS쪽으로 시료를 보내어 분석하는 장치로서 VOC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도체화GC/MS법인데, 대상물질이 알데히드이기 때문에 DNPH라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디니트로페닐히드라진이라는 부분에 카르복실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디니트로페닐히드라진 유도체라는 형태로 유도체화된 것을 마찬가지로 측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산화에틸릭은 취화수소를 부가한 것으로 취화수소에서 유도체화된 것을 마찬가지로 GC/MS로 측정합니다.

이것이 샘플링의 일레인데, 알데히드입니다. 오존스크러버라고 불리는 것인데 오존을 제거합니다. 오존스크러버를 부착하지 않고 포집하면 오존에 의해 생긴 히드라진유도체가 파괴되어버려 실제 환경농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오존스크러버에 의하여 오존을 먼저 트랩하는 것입니다. 포집관에서 히드라진유도체로 변화합니다.

샘플링량은 1분간 100밀리리터를 채취합니다. 24시간 1일 채취이므로 리터로 따지면 144리터의 공기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화에틸렌인데 마찬가지로 포집관, 이쪽은 활성탄으로 취화수소수를 흡수시킨것에 대기를 통과시킴으로써 여기서 반응시켜서 유도체화합니다. 그것을 1분당 1리터 정도 통과시켜서 1일에 1440리터, 약 1입방미터를 포집합니다.

다음으로 하이볼륨에어샘플러라는 것인데, 대상물질로는 벤조(a)피렌입니다. 이것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형광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5종류에 대해서는, 니켈헬륨, 크롬에 대해서는 원자흡광으로 프레임레스라 불리는 원자흡광법에 의하여 분석을 실시합니다. 망각이 대해서는 농도가 높으므로 일반적인 프레임 방식의 원자흡광법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비소에 대해서는 감도 문제가 있는데 원자흡광법으로 수소화물발생법이라는 형태로 비화수소 형태로 측정합니다.

다이옥신도 마찬가지로 GC/MS법으로 측정합니다. 이것이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의 개략입니다. 이 부분에 필터를 붙이고, 여기에 펌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중량계를 부착하면 대개 1분 동안 1,300,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1분간 0.1 정도로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법률이 만들어진 당시는 분석용이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측정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기간이 길다고 하여 0.1입방미터에 24시간 곱하기 7 하여 1주일 간에 걸쳐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000입방미터, 기타 물질에 대해서는 1.5입방미터씩 1일 동안 약 2,000입방미터의 샘플링을 함으로써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건식수은포집이라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대상물질로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인데 수은을 아말감으로서 포집한 후에 원자흡광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집관, 이중에서 실리카에 금을 코팅한 포집체를 넣어서 그 사이에 공기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공기중의 수은화합물을 아말감으로 포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샘플링 량이 1분 동안에 약 500밀리리터로 1일 동안 약 720리터의 샘플링 량을 취합니다. 이 포집관을, 이 부분이 히터로 되어 있는데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가열함으로써 아말감이 있는 곳에서 수은을 페이퍼로 통과시켜 수은 이외의 물질은 여기서 흡수기를 통과하여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이쪽으로, 다시 한 번 트랩하여 수은만 모은 후 다시 여기의 히터를 가열함으로써 원자흡광 쪽으로 수은을 보내서 농도를 측정하는 일련의 장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캐니스터법을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디클로로메탄은 현재 일본의 경우 환경기준이 $150\mu\text{g}/\text{m}^3$ 이며, 이 기준에 대하여 가나가와현에서는 2.3~8.8이라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벤젠은 기준 $3\mu\text{g}/\text{m}^3$ 에 대하여 1.6~3.2이므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약간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바로 자동차 관련된 것으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며, 일반적으로 벤젠의 발생원은 소위 콤비나트나 그러한 고정발생원 이외는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고, 고정발생원 주변에서는 가나가와현의 경우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지만 자동차, 이동발생원 쪽에서는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경우는 환경기준 200에 대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에 대하여 0.48~1.2 정도로 충분히 기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환경기준이 없는 물질인데, 지침치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표시되는 물질입니다. 아크릴로니트릴은 지침치가 2인데 이에 대해 0.08~0.13 정도이고 염화비닐 모노머는 지침치가 10인 것에 대하여 0.019~0.028입니다. 클로로포름은, 여기부터는 지침치도 없는데, 먼저 전국 평균이 0.27이고 높은 곳도 0.29정도입니다.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디클로로메탄도 전국평균은 0.3인데 0.066~0.084이고 0.066~0.084이며, 1·3부타디엔도 전국평균이 0.26이고 관측치는 0.2~0.51로 전국과 같은 수준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전국평균이 2.5이고 관측치는 2.1~4.4로 전국과 같은 수준이고 포름알데히드는 전국평균이 3.4이고 관측치는 3.7~8.3으로 가나가와현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조금 높아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대로 발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원 등을 포함하여 더욱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화에틸렌은 전국평균 0.11에 비해 관측치 0.069~0.1정도로 전국평균 이하의 수준입니다.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로 포집하여 측정한 것으로는 벤조(a)피렌이 전국평균 0.3에 비해 0.14~0.25입니다. 니켈은 지침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25ng의 니켈에 대하여 4.8~6.4로 충분히 지침치를 충족합니다.

그리고 베릴륨은 지침치가 없어서 전국평균 0.13에 대하여 그 10분의 1 정도인 0.014~0.017ng정도인 상황입니다.

망간은 전국평균 32에 대하여 21~29이고, 그 다음 크롬도 전국평균 7.1ng에 대하여 5.5~8.1ng입니다. 비소는 $1.7\text{ng}/\text{m}^3$ 에 대하여 1.1~1.4, 다이옥신은 환경기준이 0.6인데 대하여 0.051~0.15로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지침치 40에 대하

여 충분히 낮은 1.8~2.2ng로 지침치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VOC의 측정에 관해서는 캐니스터법을 사용하는데 현지에서 24시간 샘플링한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1년동안 12일밖에 샘플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속측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측정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GC/MS에 의하여 캐니스터 몇 가지를 그 장소에 나열해놓고 캐니스터를 번갈아가며 운행함으로써 1시간차를 두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FT/IR, 즉 푸리에변환적외선흡수측정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SPM은 연속측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옥신 등이라면 현실적으로 샘플을 가져와서 전처리하여 측정한 후 결과를 내는 경우에 약 1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은 역시 전처리라고 할까 손이 많이 가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분석을 하기 위해 GC/MS/MS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량분석장치 속에서 이온화됨으로써 어떤 질량을 픽업하여 그 픽업한 이온을 다시 한 번 파괴함으로써 특이한 물질을 특이한 질량의 이온을 잡아냄으로써 전처리를 더욱 간략화한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로서 일본에서 앞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른바 VOC규제라고 불리는 것으로 도장공정이나 인쇄공정에서 나오는 톨루엔 같은, 상당한 양이 사용되고 있는 유기용제계 물질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환경기준이 있는 것 중에서 옛날부터 측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옥시던트나 SPM부유입자상물질 같은 것이 있는데 환경이 공장발생원이나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디를 억제해야 하는가를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심의회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 가운데, 역시 VOC의 배출량을 억제해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이동근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는 유해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과 현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까 항공사진을 보니까 1940년대부터 2000년도 사이에 굉장히 대기환경이 좋아졌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은 지금 마지막 발표하셨던 (표어살을) 보더라도 가나가와현의 환경농도의 현황은 국가가 지정한 환경기준이나 중국 평균보다 훨씬 더 좋다. 즉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경기도 경우에는 환경문제에서 대기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대기오염된 그런 지역이 많은데 가나가와현의 경험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도 국가의 환경기준이 있습니

다. 있지만 경기도가 일부 환경기준을 국가보다 더 강한 기준작업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현재는 별로 없지요. 그 부분이 가나가와현에 비교해 볼 때 경기도도 국가환경기준보다 보다 강력한 환경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수준을 참고하면 경기도가 향후에 나갈 방향을 제시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기준은 정말 좋은 기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 기준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환경분과의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성현찬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성현찬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의 성현찬입니다. 앞서 중국과 일본, 두 분 발표자의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중·일 3국간에 그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로써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 즉 계획단계이상의 수준에서 환경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제도 동향과 향후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사실 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1969년 미국의 네파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은 입지라든가 상위단계에서의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저감방안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사업의 상위단계, 즉 계획과 정책, 법률단계에서 사전에 환경이 배려되도록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세계적으로는 전략환경평가 즉 스트레트직 엔발로먼트 어세스먼트 요약해서 S.E.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환경평가라는 것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수 있고 또 누적적이고 지역전체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과 일본의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도입이 됐고 발전되어 왔느냐 이것을 먼저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72년도 가기요해라든가 1973년도 항만법 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미국에도 1970년 1월 1일자 이후로 한 2년, 3년만에 도입됐고요. 한국은 1977년도 환경보존법이 제정되고 79년도 그 법이 개정됐다가 81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지방분권 제도라는 정치적 제도와 한국의 중앙집권이라는 정치제도의 차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먼저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경위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1946년 지

방자치법에 의해서 약 60년간의 지방자치제도가 먼저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지자체부터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향식으로 국가제도화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1976년에 가와사키시에서부터 홋카이도 그 다음에 도쿄도, 가나가와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경험을 가진 제도로 먼저 정착이 지자체에서 먼저 됩니다. 그러다가 1984년도에 와서 국가에서 도입하려다 실패하고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국가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1961년에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에 약 45년간 국가중심의 중앙집권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제도의 중앙집권식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국가에서 먼저 도입되고 하향식으로 지방자치제도로 내려가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전혀 다른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981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었고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독립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것은 1999년도 통합영향평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전국에서 한국 전국에 16개 지자체 중에서 한 5개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계획수준 이상 즉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입이 됐느냐, 일본의 경우 먼저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1972년부터인데 초기도입단계에서는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플랜 즉 계획과 팔로십 정책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다가 도입이 됐지만 1984년도 국가영향평가법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프로젝트 즉 개발사업단계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사업영향평가만 도입이 됐고요. 1997년도 국가법이 만들어질 때 그동안 계획단계에서 하고 있던 항만법상에 항만계획에 대해서만 특례조항으로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국가차원에서의 계획수준 이상의 전략환경평가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어찌나 환경영향평가가 지자체부터 도입이 됐듯이 1991년에 가와사키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한 환경조사제도가 도입이 됐고 98년도에는 미에켄에서 미에켄 환경조정시스템 추진요강에 근거한 환경조사서, 환경배려검토서 이러한 것들이 작성됨으로써 행정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미 90년 초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 후쿠오카시에서는 환경기본조례에서 사업자 스스로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단계에서 환경조정회의를 통하도록 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고베라든가 센다이, 치바, 교토, 히로시마, 나고야시에 이르기까지 환경평가조례에서 계획단계에 사전 배려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뭐냐하면 문서작성이 법률화되어 있지 않고 또 관련부서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발달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물론 일본에서는 역시 지자체에서 먼저 전략환경평가가 도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와서 동경도에서 종합환경영향조사제도가 도입되면서 2년간 예비로 시행했고 2002년도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와 그 앞 단계 계획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배려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사업단계에서 플랜, 계획에 이르는 통합적인 환경평가체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동경도 이게 1998년도입니다.

그리고 2002년, 2년 전이죠. 최근에 와서 사이타마현에서 동경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사업환경영향평가 위에 계획환경평가를 1개의 조례로 도입을 했지만 사이타마현에서는 독립된 전략환경평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략환경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2개의 환경영향평가조례가 따로 있고 전략환경평가가 따로 있는 2개 분리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한, 한국은 국가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지요. 또 1996년부터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단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실 행정내부적으로는 93년도부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가 이것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999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 미국의 네과법과 같은 환경정책의 기본법입니다. 이 법에 기존에 있던 행정내부검토를 법제화시켜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라는 법률적으로 계획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이제 막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일본과 한국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국가에 있어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항만계획을 거의 하지 않고요. 국가법이 97년도에 도입되어서 환경영향평가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에 대해서 이미 요강과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그림이 반대입니다. 국가에서는 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제도가 법제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단계에서는 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개발사업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계획단계 즉 전략환경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나라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의 초점은 제도의 형식과 대상계획, 평가항목 그 다음에 시기, 어떻게 협의하는지 절차 그리고 평가서의 목차내용 등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또 한국과 일본의 어떤 바이에셀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의 기준을 맞춰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본은 국가의 전략환경평가가 없기 때문에 동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근거를 보면 일본 동경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계획단계를 통합해서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형식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을 조금 발전시켜서 동일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법체결한다는 것이 형식이 다르지요. 이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주로 미국이라든

가 유럽의 절차를 따르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네덜란드라든가 캐나다 또는 유럽의 덴마크와 같은 별도의 체제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특징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일본의 제도는 주민참여라든가 이러한 것이 별도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문서작성 이러한 것도 쉬운 수속을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 같은 것이 빠져 있는 그러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에서 먼저 도입된 형식이고 한국의 경우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국가에서 도입됐다는 것이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본의 전략적 환경어세스만또라는 보고서에 대해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도로, 하천, 비행장, 폐기물처리, 에너지 그 다음 토지, 종합개발계획등 7개 계획을 도입하도록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경도의 경우는 26개 개발사업 중에서 상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걸 빼고 19개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개 사업 전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대상사업 규모가 두 배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 주로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이타마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동경도의 영향평가대상계획인데요. 기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총 26개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이 없는 부분 빼고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배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법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84개 계획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15개, 관련개발법에서 총 40여개, 기타 29개 이렇게 해서 총 84개 행정계획에 대해서 하는 상당한 광범한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어떠한, 유럽의 경우는 디렉티브2001에 의해서 2004년 6월 20일까지 유럽의 전회원국들이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도록 법령화했습니다. 아마 올해 이미 엇그제 도입이 끝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농업, 임업, 수산업 등 한 12개 분야의 계획대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과 일본과 한국의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유럽이 12개 분야, 일본이 6개 분야, 한국이 9개 분야 그래서 종합비교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약간 소극적인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계획으로 확정시킨 잉크리멘탈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대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계획이라든가 정책, 프로그램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인테그리티드모델이기 때문에 입지대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계획에 있어서도 공공지구 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지정단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시계획지구지정 이러한 지정단계를 봄으로써 입지대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대상계획 84개 중에 무려 28.5%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일본의 경우는 크게 환경을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국가에서의 17개 항목과 동경도에서는 이런 17개 항목에 더해 몇 가지를 더해 23개 항목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해서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건 없고 사업환경영향평가 23개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시에도 구체적인 사업의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개발사업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와 똑같이 정량적인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단계라는 것은 상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평가항목도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좀더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보면 생물다양성이라든가 인구, 건강 이러한 문화적 유산등 해서 총 11개의 기본항목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국 환경부에서 보고 있는 평가항목에서 보는 것처럼 수송에너지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환경에너지의 효율성, 재생가능한 에너지라든가 또는 CO₂ 고정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상위의 어떤 계획에서 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항목을 가지고있고 또 시나리오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된 평가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사이타마현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평가항목을 볼 수 있는데 사이타마현에서는 동경도나 한국과 달리 천연자원의 소비가 어떤 상위계획부분의 항목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면의 조사까지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주민의 이주, 지역사회의 영향과 같은 종합적인 사회경제환경도 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발전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일본의 경우는 결정하거나 또는 계획을 책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가 상당히 계획초기단계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준비하는 기간 채택전 입법절차 등 이런 계획에 상당히 초기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 해서 계획이 거의 완성되고 성인만 남겨준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한 대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입지대안을 검토할 수는 있는데 이게 확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입지대안을 바꿔라 하더라도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남아 있는 것이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의절차는 어떠냐 하면 여기 일본의 협의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계획단계에서 먼저 환경배려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하위 단계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영향평가를 하는 통합된 플랜과 프로젝트에 일련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참여가 공식적으로 해서 총 걸리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별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두 번 정도 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면 한국은 여기 방법이 별도의 계획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재미있는 것은 주민참여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 협의절차가 한 1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스코핑이라든가 이러한 SEA의 전략방향을 토의하고 또 주민참여도 두 번이나 관련기관의 검토가 두 번이나 되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스코핑이나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단계가 빠져 있는 것이 그래서 유럽과 일본은 그나마 주민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평가서 작성은 하게 되어 있지만 주민참여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 중심으로 비교적 폐쇄된 절차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절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서의 구체적인 목차를 살펴보면 일본 동경도의 경우 이렇게 쭉욱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요약 그리고 반드시 복수안을, 2개 이상의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대안에 대한 검토는 불가하겠습니다.

사이타마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의 대안을 포함하도록 목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역시 입지대안에 대한 검토는 불가합니다.

한국의 경우 목차를 보면 이러한 입지배치대안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일본과 달리 대안을 복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대안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즉, 일본의 경우는 2개의 대안을 동시에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것을 채택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미 계획단계에서 2개의 대안 이상을 보다가 1개의 대안에 대해서 정해진 대안에 대해서만 환경평가를 하다 보니까 환경평가단계에서 앞단계에서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코핑이라든가 환경지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액션 대안이 포함되어 있고 역시 복수대안이 평가됩니다. 즉, 일본과 한국에 없는 노액션 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액션 대안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그대로 가는 경우에 어떤 환경변화가 있을 것인가 즉, 환경변화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한 노액션을 같이 봐 줌으로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노액션이 없는 것이 차이점이고 이 노액션 대안이라는 것은 미국의 내파법에 의해서 1970년에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있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목차나 이러한 것들은 평가서 목차하고 사업의 평가서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복수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없더라. 또 한국, 일본 모두 노액션에 대한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목차 전체에 대한 비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환경평가에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제도의 형식이라는 것은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업과 동일한 조례에 의해서 한국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계획은 일본은 12개 정도가 되고 인테그레이티드 유럽은 이때 통합적인 모델인데 비해서 일본은 6개 정도로 적으면서 상향적인 인크리멘탈 모델이더라. 그렇지만 한국은 한 9개 정도 계획이 되고 통합적인 모델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나 협의시기, 협의절차, 평가서 내용 이러한 것들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종합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국가, 지방 모두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있고요. 통합적인 모델이고 평가항목이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등이 포함된 개방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노액션 대안도 포함되어 있고 복수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는 전략환경평가가 없지만 지방에는 도입되어 있고 상향적인 모델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등이라든가 이런 개발적인 절차는 있습니다만 노액션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는 도입되어 있고 일본과 반대로 지방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모델이고 주민참여가 빠져있고 노액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안은 설정되지만 단수안을 하지만 입지대안이 검토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이나 한국과 일본제도의 어떤 차이점 이러한 것들은 행정제도라든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건, 정치적 요건 이러한 것에 따라서 제도가 서로 다르게 발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략환경평가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계획환경평가는 전략환경평가라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실제 은밀한 의미의 전략환경평가라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환경이 통합되는 것에 비해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한다는 것이 실제적인 전략환경평가와 조금 차이가 있고 전략환경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노액션 대안과 입지대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평가항목도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다는 것이 실제적인 전략환경평가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전략환경평가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에는 지방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되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영향평가 제도를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주고 지침서를 발간하는 어떤 제도의 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시행착오가 국가 제도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지역주민이 참여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보다 개방적인 제도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전략환경평가가 도입될 때도 일본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본 사이타마 현과 같은 지방정부에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가 영향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국가제도화로 곧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찌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같이 국가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제도자

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나 경험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중용을 해야만이 지자체에서 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추세는 전략환경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먼저 이러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제도화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예산지원 이러한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역적이고 개방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앞으로는 관 주도의 사령탑이 아니고 일본과 같은 어떤 관리자의 역할로 위상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환경평가의 발전방안은 한일 모두 전략환경평가법이, 근거법이 일원화되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계획법 체계내에 환경평가규정이 도입되어야만이 실질적인 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발계획과 별도로 환경평가법을 만든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제도 내적인 방향으로는 여러 가지들 앞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간에 공동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일간 또는 한중일간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어떤 공동 심포지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개최라든가 또는 동북아문제에 대한 한·중·일 공동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이동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특히 전략환경평가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연구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 어떤 제도를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쓰여 있는 글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발표자가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국가에서 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도입은 되었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 주민참여가 부실한 관계로 정말 의미의 영향평가제도가 아닐 수 있다하는 부분도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 중국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다른 발표에서 중국 골프장을 만들 때 영향평가제도에서 실제 평가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것은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생태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영향평가제도는 사전예방적인 방법으로 정말 중요한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보다 각 지역에 맞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고 또 서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보다 공통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발표 시간내에 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발표에 대한 내용을 중

심으로 토론세션이 되겠습니다. 토론자는 현재 두 분이 토론을 하시고 혹시 일본측에서 토론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은 한 분당 5분 정도 뭐 조금 길면 10분까지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자에서 우선 순위가 먼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유현석 박사님 토론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현석

안녕하십니까?

(테이프 뒷면으로 넘어감)

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풍 하나가 지나가면서 사실상 여기 모인 3국이 다 공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하는 부분들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오늘 한·중·일 공동학술대회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하나의 교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세 나라간에 환경협력 방안에 관련된 사항하고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특히 다이옥신이라든가 브이오시 관련된 측정 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현황에 어떻게 현황에서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한일 두 나라의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고를 받고서 세 연구가 굉장히 서로 개성이 있고 방향적으로 독특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들으면서 직접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사실상 각각 다른 방향에서 만들어진 연구이고 발표주제 내용들이지만 이것이 사실상 하나로 통합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측 요녕성의 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협력방안이 또한 환경정책적인 차원에서 주로 다루지는 내용들 그 다음에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기술적인 연구의 내용으로서 일본에서 가토씨가 발표하신 그런 측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제일 마지막에 성현찬 박사께서 말씀하신 전략환경평가쪽에 사용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사실 환경영향, 특히 국가간에 협정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에 관련된 그런 영향에 제일 큰 부분이 저는 뭐 오늘 발표에도 말씀이 있으셨습시다만 대기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는 대기오염물질이 각각의 다른 나라간에 미쳐지는 그런 영향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발표를 하신 성현찬 박사의 전략적 환경평가, 전략환경평가가 사실상 제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처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 박사님의 내용은 약간 전략환경평가 중에서도 좀 중간단계, 플랜 이하 단계, 계획 이하단계에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략환경평가

에서 중요시 다뤄지고 또 오늘과 같이 한·중·일 3개 국가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보다 좀더 높은 단계, 좀 정책적인 단계에서의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지고 이것이 3국간에 공동으로 이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련된 제 의견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대기의 내용이 사실상 어떤 전략환경평가에서 다뤄진다면 그리고 아까 보면서도 평가서 내에 있는 그러니까 평가의 내용들이 이것이 뭐 이렇게 정해지고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각각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서 공통적인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각 한국에서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국가 에너지정책이 향후 20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을 했을 때 이것이 한국 한반도 내에서만 나오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환경영향 이런 부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이라든가 중국까지 미쳐지는 대기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가 되어지는 그런 전략환경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서 한 가지 뭐 대기영향이라는 것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하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에너지관련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얼마만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또는 그 증가에 따른 오염이 향후에 어떻게 컷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3국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저감한다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의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그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방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연구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협동해서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요녕성하고 가나가와현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인천광역시하고 일본의 기타큐슈시 또 중국의 다롄시하고 또 자매도시를 맺어 가지고 같이 공동적으로 환경에 대한 환황해권에 대한 환경을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연구에도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지자체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내용들이라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접근할 때는 일단 3개의 자매도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환경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도출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그 해결책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경험이 만약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오염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서로의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역적 현안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역할이 없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잘 해 주셔서 저는 별로, 지금 유현석 박사님께서 세 가지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끝에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질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3개 도시, 3개 지역에서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단계 해결방안을 써 왔는가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요녕성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가나가와현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왔는가에 대한 혹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경험들을 간단하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질문을 모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는 중국 분입니다.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의 부원장으로 계시는 曹曉峰씨 부탁드립니다.

○ 曹曉峰

저는 환경분야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저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평론을 하라고 하시니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 기회를 통해 간단하게 몇 가지 상황을 소개하고 한 가지 건의만 하여 다른 전문가분들께 더 많은 토론의 시간이 할당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세계 각국은 환경의 정화와 보호문제에 대해 점점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은 최근 계속해서 환경문제와 환경보호방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건립한 환경감시 및 측정제도나 환경감사제도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환경문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과 일본, 한국, 미국, EU는 함께 협력하여 환경방면의 문제, 특히 중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방금 여러 학자분들께서 제시하신 방안들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통치이념상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과학발전관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물질적인 이득,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과 문화적 이용을 보편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의 질은 당연히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의 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바로 5개 전면계획 혹은 5개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반드시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이어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은 상호협조가 있어야 하며, 중국 국내의 발전은 대외 개방과 반드시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중국 내부지방의 발전은 발달지역과 낙후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며, 도시와 농촌의 발전 역시 상호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환경의 상호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환경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져서는 절대 안 되며 후대의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통치이념은 일종의 새로운 발전관념으로 저는 중국이 오늘이후 환경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한·중·일 3국간에 환경방면에 협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면 자연환경은 앞으로 더욱 유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건의사항은 어느 학자가 제시한 동북아환경공동체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동북아환경공동체건립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나 어떻게 이 공동체를 건립하고 공동체의 조직방식, 협력의 형식,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좀더 심도 깊은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 이동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 다섯 가지 부분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끝에 오늘 주제의 하나 큰 부분이 동북아 특히 세 지역의 환경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주 무거운 주제기 때문에 이 주제는 오늘 토의에서는 결론을 맺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최종에 향후 과제로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있었고 또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플로어에서 혹시 밖에 계신 분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오늘 발표자의 답변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 플로어 중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한 분 정도는 시간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 문정구 금방 조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칭 동북아 환경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에 동북아 환경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한킴벌리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다수 뭐 상당히 대규모로 가요. 뭐 100명 이상, 200명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 유한킴벌리에서 대주는 거로 알고 있고 중국의 몽골지방, 중국의 북부 몽골하고 변경지역에 사막화가 진행되는 데 가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막화를 막고 황사현상의 피해를 줄여보자 그런 운동을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하고 더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근

문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북아 환경공동체의 한 방안으로서 현재 한국에서 유한킴벌리회사가 지원하고 있는 협력방안이 있다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향후에 특히 이 세 지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참조가 될 것 같

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국가별로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문제를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부분을 극복해 왔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면, 유현석 박사님 맞습니까? 제가 오해를, 다시 한번.

○ 유현석

전략환경평가에 관련해서 한번씩 전부 각 나라별로 어우러져서 같이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하고요.

○ 이동근

전략환경평가에 있어서 어떤...

○ 유현석

아까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질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금 3개의 시에 공동현안으로 대처한 환경문제는 뭔가 그런 부분을 먼저 조금 알아두고 서로간에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내용을 바꿔서...

○ 이동근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보다 우선적으로 각 3지역, 요녕성 그리고 가나가와현 그리고 경기도에 가장 현안이슈가 뭐냐,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선 같이 알아보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각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질문에 대해 아까 가나가와현의 加藤陽一씨가 답변을 해 주시는데 혹시 답변과 더불어 다른 지역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도 같이 병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加藤陽一

공통의 환경문제는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산성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고, 산성비의 유황산화물 등은 중국에서 유황의 동위체를 측정함으로써 중국에서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일본의 산성비에 영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고는 있지만 영향이 없는 수준인지, 오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영향이 있는 수준인지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광역적으로 그 변화를 쫓아가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만 측정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중국이라면 중국에서 측정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얼

마나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성비 같은 것은 광역적으로 대응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지금 다이옥신 관계의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역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배출되는 장소를 알아낸 후에 법률을 만들었는데, 역시 당초에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식으로 봐 두었던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곳,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던 장소에서도 상당량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이 발생한 설비라는 것은 라디에이터, 열교환기 설비였는데 온도는 300~400도 정도밖에 열을 가하지 않고 유기분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이옥신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원래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시설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사업소에 대책처리를 부탁했지만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또 하나의 효과적인 공해발생 억제 장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동근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가 그러면 가나가와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뭐냐, 어떤 부분이 가나가와현에서 가장 환경문제에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 加藤陽一

가나가와현으로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가나가와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나가와현은 관동권입니다. 광화학 옥시던트의 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VOC규제라는 것을 이번에 일본에서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로 규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 같은 것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른바 질소산화물이나 유황산화물 등을 규제할 때는 국가의 경우에는 어떠한 작업을 하는가 하는 다른 시점에서 규제를 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환경문제에 관하여 충족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VOC에 관해서도 조례에 나와 있을 정도로 가나가와현의 경우에는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측에서 VOC규제를 해나감으로써 더욱 넓은 범위에서 VOC를 억제함으로써 환경기준에 달성할 수 없는 광화학 옥시던트의 관계나 SPM 부유상물질의 환경기준 달성을 목표로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오신 禹穎子씨 부탁드립니다.

○ 禹穎子

우선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요녕성은 환경보호에 있어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녕성은 시설 건설에 있어 환경보호방면에서 거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과정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삼동시(三同時)의 원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三同時의 원칙이란 건설·환경보호·정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산투자와 검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의 방면에서는 성정부와 시정부가 시민의 여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환경보호고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사항인 요녕성의 주요 환경문제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요녕성은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로써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기오염문제입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성정부와 관련기관이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간주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요녕성이 중공업의 집산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3개 지역의 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공통관심이 되는 환경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통 환경문제를 도출해내고 난후 이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성현찬 박사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현찬

저희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대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대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한국의 인구 4,000만 중에 2,000만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경기도가 배후지역으로 상당히 대기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녹지보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0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외곽 녹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경기도의 주로 동부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는 거의 녹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축에서 서쪽이 거의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황사문제가 같이 달려 오면서 한국의 서해안 쪽에 있는 개발축이 서울을 지나가는 이러한 대기문제와 녹지보존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국간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 환경문제에서도 아주 거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한 도구 툴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자유스럽게 발표됐는데 이러한 학술세미나가 매해 이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공동관심사라든가 그러한 핵심적인 문제에 앞으로 접근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한·중·일간에 공조체제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북아환경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있는 학술세미나는 3개 현의 지역적인 협의체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문제, 거창한 국가적인 뭐 대기나 황사문 제보다는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실제 가지고있는 문제가 뭐냐를 서로 논의해 봄으로써 서로 지역에서의 어떤 개선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한국과 일본간에 전략환경평가를 비교한 이유도 한국과 일본, 중국은 정치체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부분이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이나 환경보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아시아와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임을 조금 더 자주, 몇 년이 걸리다 보면 이러한 서로의 해결책을 또는 서로의 공동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적어도 3, 4회 정도 되면 어떤 유사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서로 한·중·일간에 각 현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5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받은 시간이 120분인데 5분 정도면 아주 잘 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자 또 문교수님의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중계되었던 부분이 어떤 대기문제 그리고 환경협력의 문제 그리고 영향평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잘 제기되었고 그리고 잘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바탕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선 끝애가 여러 번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계속 이런 포럼은 이어져야 된다. 올해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시행이 되었고 제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공통분야, 서로 관심분야 그리고 같이 해결할 분야를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포럼을 듣고 제가 테마를 제안한다면 아마 서로의 공통분야, 관심분야인 어떤 대기의 문제. (테이프 뒷면으로 넘어감)

있기 때문에 다음의 주제는 대기와 녹지, 대기와 녹화 이런 테마로 갖고 간다면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제기와 그리고 해결방안 또 각국의 경험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만든 동북아의 새로운 모형이 다음에 동남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세션을 정리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회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분과포럼은 약 15분 정도 휴식한 후에 4시 20분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동북아국제학술포럼

제 3 분 과
행 정 분 과
▪ ▪ ▪ ▪

○ 사회자

행정분과회의 사회는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曹曉峰 부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曹曉峰 부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曹曉峰

이제 오늘의 토론의 마지막 주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주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개국간의 협력은 경제, 기술, 문화, 심지어 환경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의 방식이 정부간, 사회단체간, 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간의 협력은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범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 참가기관의 주제발표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성 연구원, 요녕사회과학원의 于治賢 연구원이며 토론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오영균 연구원, 요녕성정부발전연구중심의 盧松 주임, 그리고 가나가와현의 현민부국제과 金子教彦 선생님입니다. 할당된 시간에 따라 발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성 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치행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에서 한·중·일 지방정부간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핵심은 지방정부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가, 협력을 위한 틀을 제시하는데 제 발표의 요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위상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또 어떻게 향후에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3개 지방정부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이 3개 지방정부간에 협력필요성을 한번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협력의 틀, 3개 지방정부간에 협력의 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제시하는 순으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시대는 크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로 표현될 수 있는데 국지적인 변화, 국제적으로는 국가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자리잡아온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하나의 시장,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화가 한 변화가 있고요. 이와 함께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국가내에서의 변화입니다. 즉,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과 지방이 중앙은 지휘통제를 하고 지방은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들을 충실히 집행하는데 그 역할이 있어 왔지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중앙이 그러니까 지방이 보다 대등한 파트너의 관계로 다시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세계화, 지방화

가 오늘날의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화 속에서 지방정부는 과연 어떤 위상을 갖는가, 먼저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행위주체는 단연코 국가였습니다. 국가, 중앙정부가 한때는 유일한 또 한동안 아주 도미넌트한 그런 행위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국가가 여전히 아주 유효한 그런 행위자지만 이와 함께 민간기구 기업, 개인도 역시 중요한 행위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새로이 떠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국가와 함께 중앙정부와 함께 세계화 또는 세계화속의 국제관계속에서 아주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적인 기능을 하고 바로 이런 것이 기존에는 국가중심, 국가와 국가간에 그런 교류, 중앙정부 중심의 교류에서 이제는 지방 중심의 교류로 바뀌어 가는 그런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의 경쟁이 바로 국가, 그 나라, 그 지방이 속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방정부간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요.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크게 대내적 경쟁력이 있고 대외적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바로 대외적 경쟁력입니다. 일단 지방정부가 세계화속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재화 또는 체질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 국제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해 왔던 그런 영역들 즉, 세계시장의 개척과 진출 그리고 선진 및 주변여건의 교류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방정부의 당당한, 새롭지만 당당한 활동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세계화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게 자체적인 국제역량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아울러 지방정부간에 국제협력도 역시 세계화속에서 지방정부가 활로를 모색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방편이자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정부간에 국제협력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제시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해당정부간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성 중에 하나겠지요. 물론 현안해결의 극대화는 사실 중앙정부간에 협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간의 협약에 있어서는 각 개별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부간의 국제협력은 바로 이런 각 개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협력의 신속성과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바로 대내외적인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각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소위 협력해서 상대방 정부의 장점들을 뽑아서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이걸 다시 또 습득해서 이를 통해서 자체적인 행정역량의 신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성은 바로 국제적 역량제고의 기회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정부간에 국제협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화에 훈련이 되고 역량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국제업무 담당조직의 확충과 개선 그리고 국제인력의 육성 이런 걸 통해서 지자체, 지방정부 스스로가 국제적인 역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요.

이런 일반적인 논의와 함께 3개 지방정부간에 협력 필요성을 표 하나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핵심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경기도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핵심적인 수도권지역입니다. 각종 첨단산업이 입지해 있고 GDP의 25%가 바로 여기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거의 전범위에 걸쳐서 우수인력이 경기도와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요녕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중국경제 사회에 핵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녕성의 지리적 위치상 유럽, 러시아, 아시아로 있는 요충지에 요녕성이 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요. 그 중에 심양시는 동북3성의 물류중심지라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둥, 요녕성에 있는 단둥지역은 북한 신의주와 접경해 있어서 교류가 상당히 빈번하지요. 저희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요녕성과 경기도 그 다음에 북한의 신의주 이렇게 있는 그러한 사업들 예를 들면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요녕성 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요녕성의 역할이 매우 큰 것 같고 또 경기도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고 이에 따라서 협력의 필요성도 그만큼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가와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가와현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심지 그래서 일본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와 상당히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로간에 상호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이 3개 지방은 상호보완과 상호 ()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조금 그림 이 3개 지방정부간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력의 틀을 제시한다. 어떤 협력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협력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어떤 틀속에서 담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뭐 이런 데 초점을 넣어서 네 가지로 지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협력포럼의 운영을 저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술포럼인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지요. 보다 정기적이고 정례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포럼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과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3개 지방정부간에 정보제공 및 교환이 한 기능이 되겠고요. 공동관심사 논의 그 다음에 향후에 3개 정부간에 협력방향 설정 및 구체적 협력방안 제시 이런 것들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당연히 3개 지방정부의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울러 그 지역의 기업가, 학계인사, 시민단체 등 비정부 부문이 또 함께 참여하는 그

런 포럼을 저는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조직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회의가 있고 전체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과 비정부 부문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종의 총회 같은 개념이 되겠지요. 전체회의를 주요 그야말로 핵심기구로 놓고서 각 분과별로 분과별 위원회, 여기 제가 태스크포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뭐 환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 토의된 내용, 전체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의장단이 상위에 있겠지요. 의장단은 각 3개 정부의 장들과 부단체장들 2인에서 6인 정도로 구성을 하고 의장단은 한 정부가 1년씩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의장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회의를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문회의조직을 두고 그 다음에 협력포럼의 모든 일상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국의 운영을 맡아주는 거지요. 지원업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공동사무국의 산하기구로서 국제정보교류센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거는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구조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국제정보교류센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제정보교류센터에는 3개 정부의 각종 정보들이 서로 모이고 서로 교환되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요.

국제협력포럼과 별도로 또 하나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게 분야별 정부간 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의 국제협력포럼은 3개 지역에 가능한한 모든 분들 우리 관심있는 모든 분들 역량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걸 보다 실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개 정부의 공무원들, 실무 공무원들로 이런 정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기능은 실제 행정과 관련되어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공무원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래서 국제협력포럼과는 별도의 조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은 크게 5개 분야로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를 한 5개를 뽑아봤는데요. 일반행정, 경제, 도시계획, 환경, 시민참여 그래서 각 분야별로 3개 정부의 공무원들 주로 국장, 과장을 필두로 해서 실무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간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안이 공무원 교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로간에 인적인 인적접촉기회가 크게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상호방문과 교환근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상호방문의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의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아마 요녕성이나 가나가와현도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거기에 연수를 받고 연수이후에 분야별로 실무자간에 서로 접촉과 교류를 하는 그런 식의 상호방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환근무는

사실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의 파견근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가나가와현이나 요녕성이 잘되고 있다면 아예 여기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파견시켜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오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양국의 협력의 중계자 역할 그러니까 주로 국제협력부서에 파견되어 나와서 주로 일반적인 전체적인 중계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실무를 배우고 같이 근무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번째는 공동연구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아마 요녕성에도 역시 같은 연구기관이 있고요. 가나가와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연구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가정하고 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3개 지방정부간의 공동관심사들,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의 추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협력포럼이나 분야별 협의체에서 나왔던 안건들 중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 연구기관간에 서로 공동으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동연구가 하나의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정보교류 인프라구축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매년 나오는 보고서를 상대국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보고서를 서로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미스프린터가 되었는데 3개 연구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외협력팀 뭐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그걸 강화해서 보다 3개 연구기관이 보다 강화된 협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서로간에 연계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류와 마찬가지로 연구인력도 상호 교류 또는 상호파견 및 교환근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원에 근무하면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공무원 교류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있을 것 같고요.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해서 보다 아마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호교류가.

그 다음에 오늘 이게 공동학술회의인데 이게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학술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이런 규모가 있는 학술회의와 함께 소규모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曹曉峰

김동성 박사님은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는 3개 지역의 정부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술했습니다. 필요성은 다시 두 가지 면에서 체현되는데, 하나는 시대의 특성면에서 본 것으로, 현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인 글로벌화의 추세 혹은 세계화의 추세와 국가내부의 통치형태가 중앙집권형에

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였는데 지방정부의 경쟁력강화의 문제, 지방정부의 경쟁력강화는 실효성 상승과 이익최대화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의 다른 하나는 3개 지역간 비교우위의 상호보완의 각도에서 볼 때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3개 지역간의 협력 방안으로 이는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협력 방식에 집중하였습니다. 발표내용 중에 새로운 접근법이 많이 있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협력포럼 개최, 일반행정영역의 협력, 공무원간 교류, 업무부서교환 등은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박사님의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요녕사회과학원의 于治賢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어서 于治賢연구원의 논문이 논문집에 실리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논문이 프린트되어 방금전에 나눠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于治賢

사회자님, 포럼의 순서상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할 주요 내용은 잠시 후에 화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국제협력과정 중에서 지방정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성 연구원께서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과정 중에서 지방정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제협력과정 중에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제협력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의 재배치권과 증가한 공공자원의 배치권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우리에게 지방정부의 주요 직무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에서 지방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경제학의 원리는 지방정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건설이나 발전과정중의 제도공급자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정 수량 혹은 일정 범위내에서 행할 수 있는 유효정책자원입니다. 하루 동안 저는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발표를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학자 모두 발표 중 외자의 이용과 외부자금의 유치, 인센티브의 제공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정도가 중국보다 높은 선진시장경제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각종생산요소를 유치하는 정책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셋째는 노동자원입니다. 실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원은 단순히 현지 노동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으로 흡수하게 될 외부 노동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본래 700만 명에서 현재는 1000만 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본래의 자연인구 성장률을 제외하면 아마도 증가한 인구의 상당부분은 외부에서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일 것입니다. 중국 심천의 발전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 자원을 포함하는 다량의 외지노동력이 심천으로 유입되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국제경

제협력과정 중에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국제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티브가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세 가지 면에서 모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제도가 어떠한 지방정부는 언제나 지방경제 발전의 책임을 띠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본지방정부는 지방자치체로 불리며 이에 상응하는 전문 법률이 있으며, 한국의 체제 역시 일본과 비슷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얼마나 클지라도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 한국과 같은 체제의 조건이나 중국과 같은 체제에서나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지방경제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일본이나 한국, 중국을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리더는 앞으로 능력이 재고될 것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해 낸다면, 지역경제의 발전은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거시경제의 통제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정적 조절과 금융조절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지방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임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공급자입니다. 공공재는 일정 지출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생산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현지환경, 교통, 생태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어 경제발전이 없고 세수 수입이 없다면 공공재생산의 임무는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생산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각도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국제협력력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공공재 생산능력을 상승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각도에서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즉 지역경제의 발전과 해당지역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인 위상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시절에 미국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967년에 미국에서는 소위 권력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권력이동이란 1960년대 후반기에 미국경제구조의 고도화로 산업의 중심이 전통적인 중화학공업에서 전자산업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전이되었고 이는 수많은 미국내 대기업들이 전자산업으로 투자를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공장들이 북위 37도 이남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발전은 현재 미국하원의원의 주 배당 인원이 47명으로 할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전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소개하셨듯이 경기도의 GDP는 한국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형태의 변화에 있어서도 일부 법률의 제정은 확실히 이러한 지역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문화대혁명이전 광둥성의 성정부위원회 서기, 산둥성의 서기는 원래 중앙정치국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둥성이 1978년 개혁개방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산둥성 역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자 현재는 중앙정치국에 산둥성서기와 광둥성서기가 포함되

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이익의 측면에서 이러한 모티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중부의 맨체스터, 리버풀과 같은 지역이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국제경제 협력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자원 그리고 원동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중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하의 지방정부간 적극적인 협력의 진행입니다. 제 이론을 논술하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 국내외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 협력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20여 차례 정도 참가하였습니다. 동북아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항상 정치사회제도는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임을 인식하고 나서 이 문제를 논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녕성의자유치실 주관으로 요녕성에서 요녕성, 경기도, 가나가와현 등 우호도시간 좌담회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요녕성에 공무원 한 분을 파견하였고 저 역시 이 회의에 초청되어 보고를 하였습니다. 회의 상에서 논의된 동북아경제협력상 애로점은 북한문제, 특히 상이한 사회체제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회제도가 완전히 같다면 이는 매우 이상적인 상황으로 현실사회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대만의 한 학자는 자신이 집필한 책에서 '일본은 유교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 회사가 핵심이 되는 유교자본주의이며 대만은 인관관계가 핵심이 되는 자본주의의 대표국가이며, 중국 대륙은 유교사회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결론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의 사상은 한 가지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한·중·일 3국은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며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서방사회와는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적어도 3국간에는 사회제도상의 차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환학자로 영국의 에딘버그 대학에 일년 반 동안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근본적으로 역사적인 적대심을 서로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감정의 틈은 계속 남아 있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침입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지역의 경제는 스코틀랜드지역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계속해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내부가 이러한 진데 사회제도상의 차이는 그리 중요하게 간주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제도는 다르지만 한·중·일 3국간에 경제체제는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으며, 이는 이미 공통현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경제체제가 점점 동일화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과 미국의 시장경제모식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국인이 썼던 Korean Economy라는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 한국경제의 발전에서 많은 부분이 대기업에 대한 적극 발전 정책과 같은 정부주도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의 큰 틀을 기본적으로 완성하였고 이는 현재 점점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체제의 동일화는 국제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 체제상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이한 사회제도와 상이한 문화적 배경, 심지어 상이한 종교간 협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예는 많은 부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단동지역을 가보셨는지, 그리고 단동과 북한간의 국경무역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정치체제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는 두 지역의 경제교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요녕성과 북한의 국경무역과 일반무역은 북한과 중국 두 국가간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넘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국제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은 점점 없어질 것이며 국가간경제체제의 동일화와 같은 큰 변화추세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주제는 요녕성과 경기도, 가나가와현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지방정부간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저의 개인적 건의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정부간의 정보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인터넷상에 모두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자국정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기본적인 경제발전상황, 산업구조조정이나 산업배치계획 등과 같은 이미 결정된 미래 발전계획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 홈페이지는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상대방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둘, 인력개발방면의 협력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요녕성의 입장에서 말하면,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면, 제가 보았던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중국 다국적기업의 보고결과에 보면, 일본의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동경에 연구개발본부를 두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며 이는 계속해서 산업공동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산업구조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기술자들의 배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OECD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구조는 고급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지역 모두 산업구조의 고도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인력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노동자원 공급문제를 만족시킨다는 것이지, 단순한 자원 해결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은 모두 직업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셋, 방금 전에 김동성 박사께서 발표하셨듯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포럼은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저마다 나름대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내에서도 요녕, 길림, 북경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학술 토론이 진행되어, 처음에도 그랬던 것처럼 십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토론은 평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자원 낭비입니다. 세지역의 지방정부가 나서서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주제를 확정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동시에 심도 있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 문화와 과학기술교류 시스템을 정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지대 건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발리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는 연합성명을 통해 3국의 국가경제연구기관간의 협력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미 중국국무원산하 국제경제무역연구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은 일본, 한국의 연구기관과 함께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중국의 여러 웹페이지에서 보았는데 조사결과는 85%이상의 한·중·일 기업이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3국의 각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각 지역은 모두 다른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 지역이 현지의 산업구조와 산업고도화 계획을 고려하여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자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세지역간 학계 교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히 상대방의 현황을 이해하거나 어떤 문제에 관한 학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 한국에서 온 손님-예를 들면 청와대경호실 관련자, 통일부 정보국장,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제일은행조사부장, 서울대학교 교수 등-을 맞이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들은 항상 중국학자들의 북한문제에 관한 관점에 너무나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류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중국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충돌이 있어야만 비로소 불꽃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국학자들이 어떠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나름의 방법이 있고, 일본학자들 역시 나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요녕성 및 동북지역노공업기지 부흥계획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산업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한국에 관한 자료를 잘 보지는 못했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전 한국경제의 고민거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 노동비용의 상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은 자신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만 너무 집중하였고 비교우위가 국제경쟁우위로 발전하는데 소홀했습니다. 한국경제구조의 고도화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포터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구조의 고도화는 경쟁우위의 길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비교우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개발도상국의 노동비용은 비교우위로서의 이점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동북노공업기지 부흥정책과 관련하여 해외자본은 국유기업 개혁과 국유기업 인수합병, 국유기업 불량자산 처리 등 과정에 참여하여 좀처럼 찾기 어려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건의사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저의 개인적인 건의사항을 미진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기도나 가나가와현의 현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단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曹曉峰

于治賢 박사님께서 지방정부가 국제경제협력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제경제협력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앙정부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지방정부가 소유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국제경제협력의 원동력 방면에서도 논의를 해 주셨는데 비교연구의 방법으로 사회제도의 차이는 더 이상 지역경제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역사적인 회고나 지역간 비교 사례를 통해 이를 보충하셨습니다. 여러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방정부간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주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건의, 특히 가나가와현과 경기도 지방정부가 현지, 그리고 중국의 동북노공업기지 부흥계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주셨는데 이는 매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于治賢박사님의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나가와현의 현민부국제과의 金子教彦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 金子教彦

가나가와현의 가네코입니다. 토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나가와현의 국제정책과 3지역 협력의 다양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경제의 글로벌화와 보더레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간의 국제적인 종합의존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은 NGO, NPO라고 불리는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국제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외국인 현민의 증가와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환경의 커다란 변동기에 가나가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지난 3월에 책정했습니다. 그 이름은 「가나가와력(力) 구상」. 「가나가와력 구상 프로젝트51」. 이것이 종합계획의 명칭입니다.

또, 종합계획 중에서 국제정책을 특화한 「가나가와 국제정책추진지침」이라는 것을 현재 작성중이며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이 2권을 골자로 하여 가나가와 국제정책의 장래 방향을 약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점으로서 3지역,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 교류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약간 고찰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가나가와현의 새로운 종합계획 「가나가와력 구상 프로젝트51」의 목적은 활력있는 지역사회, 살맛나는 생활의 창조를 이룩하기 위한 가나가와 전반에 걸친 종합적, 기본적인 것으로 2004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의 목표는 크게봐서 10년후인 2015년의 가나가와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의 내용은 먼저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중에는 기본적 시점으로서 현민일체의... 다음으로 지역의 확립... 이러한 시점을 가지고 실시정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을 7가지 정책과제 분야로 책정하였고, 큰 과제가 7개 있는데 먼저 첫째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의료 기반 정비」, 둘째 「현민의 안전·안심의 확보」, 셋째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 넷째 「산업진흥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째 「지역으로부터의 환경보전과 창조」, 여섯째 「마음 풍요로운 생활과 함께하는 사회 실현」, 일곱째 「개성이 넘치는 지역만들기」. 이렇게 7가지 정책과제 분야를 책정하여 지금 설명한 7가지 정책과제 분야중에서 특히 2006년까지 3개년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51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51가지 프로젝트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국제정책에 관련된 프로젝트로서는 총 51개중에서 NO.16에 「국제성이 풍부한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의 프로젝트.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NO.24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재교류 추진」 이것은 새로운 산업과 산업활동화라는 주제입니다.

NO.27로서는 가나가와 관광을 추진하여 새로운 체험형 관광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NO.31은 외국적 주민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형성...

(테이프 뒷면으로 넘어감)

방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나가와 국제시책추진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완성될 예정인데 현이 담당할 역할의 기본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이러한 시점을 가진 가운데 광역적이고 선진적인 대응, 공동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이러한 생각으로 방향이 있습니다.

가나가와 국제시책추진지침을 만드는 전제로서 가나가와의 지금 현재의 상황 분석을 보여주는데 현민의 해외 출국상황을 보면 현민의 해외출국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2년에는 약 108만3천명이었던 출국자가 10년후인 2002년에는 171만7천명으로 약 50만명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설명한 출국자수의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위쪽의 선이 해외의 도항자수로서 1980년경에 비해도 상당한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여권 발급건수인데 이것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도항자수는 이렇게 증가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NGO, NPO의 상황을 보면 가나가와현내에 있는 국제활동을 하는 NGO, NPO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따라 현의 단체에 의한 기획인데 2000년에 비교해보면 2000년에는 113단체인데 이중 국제활동을 주로 행하는 단체는 11개 단체였습니다. 그것이 4년후인 올해 2004년에는 945개 단체, 단체수는 약 9배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115개단체로 약 10배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4년동안에 NGO, NPO의 활동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설명한 숫자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적현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본국적 이외의, 이른바 외국적현민과 정주자의 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10년동안 비교한 것인데 1992년에는 외국인등록자수가 10만1천명, 이중 정주자수는 7만2천명, 10년후인 2002년에

는 외국인등록자수가 14만1천명으로 약 4만명 증가, 이중 정주자수는 약 9만명으로 1만8천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증가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현상분석의 네 번째로서 현내 기업의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내 기업의 해외진출의 진전으로서, 외자계 기업의 현내진출인데 이것은 1997년과 2002년의 5년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가나가와현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건수는 1997년에 약 640건이었고 현내에 사업소를 가진 외자계 기업수는 약 40건이었습니다. 이것이 5년뒤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건수가 860건, 외자계 기업이 430건으로 각각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관계단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나가와현내에는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국제교류단체를 비롯하여 19개 시·정에 지역국제교류협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독립법인 국제협력기구 요코하마 국제센터, JAICA라고 불리는데, 그런 기관, 또한 재단법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이것은 국제적인 기관으로 UN과 관련된 기관인데, 이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국제정책을 만들 때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다섯 가지 시점이 있는데 상호 이해를 위한 의식 조성, 국제성 풍부한 인재 육성, 평화로운 시민지역사회 조성, 외국적 현민의 인권 존중, 현민 및 NGO, NPO등과의 공동연대, 이러한 시점을 가진 가나가와현에서 국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목표라는 것을 4가지로 만들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시점에서 기본목표를 각각 만들어서 먼저 지구시민의식 조성 and 평화적인 풍토 형성을 큰 목표로 하고 지구시민의식 조성 and 타문화 이해의 추진, 비핵 평화의식 보급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학습시키는 것이나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등,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목표의 두 번째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교류, 협력 추진이라는 것으로 세계의 지역과 교류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아 지역등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 환경분야에서 인간, 기술, 정보의 국제교류 추진. 이러한 것도 정책으로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기본목표 3은 외국적 현민과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 형성, 이는 외국적 현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현민 등의 국제활동 지원, 또한 공동연대 촉진이라는 것으로 현민의 국제생활 지원, 현민의 국제활동과 공동연대 촉진, 그리고 쇼난(湘南)국제촌의 정비·촉진, 미군기지 대책 추진, 이러한 시점의 4가지 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민, NGO, NPO, 시정촌, 기업, 관계단체와의 공동연대가 중요한데, NGO, NPO, 외국적 현민과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저희 가나가와현에서는 외국적 현민 가나가와 회의, NGO 가나가와 국제협력회의 등의 회의를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촌의 연대는 현과 시정촌의 국제정책 담당 과장 회의, 그리고 가나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정책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자, 민간단체, 시정촌 대표와의 협의로서 가나가와 국제정책 추진간담회와 같은 간담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가운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과의 연대인데, 창구를 재단법인 가나가와현 국제교류협회라는 곳에 두고 이곳과 협력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가나가와의 국제정책을 프로젝트51과 국제정책추진지침을 바탕으로 저희 가나가와현이 국제교류,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개지역의 교류로서 경기도, 요녕성과 저희 가나가와현의 교류·협력의 다양화라는 측면으로 시점을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나가와현에 있는 2004년도의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8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우호교류회의, 오는 10월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교류회의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3개지역 스포츠교류로, 8월에 열리는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의 고등학생의 행사인데 올해는 축구대회 교류가 개최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행사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지역 경제인 교류회의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기술원연수제도라는 것으로, 이것도 가나가와에서 6개월 정도 기술연수생을 받아들이는 제도인데 올해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나가와 국제 스칼라십이라는 것으로 가나가와현에 있는 보건복지대학에서 유학생 2명을 받아들이는 사업입니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의 3개 자치단체중에서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위생분야의 교류를 실시하기로 테마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방문단 초청사업으로 이는 당연히 저희 가나가와에 오시는 우호방문단을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8가지 사업을 저희 가나가와에서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가나가와력구상·프로젝트51」, 아까 말씀드린 가나가와국제정책추진지침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방향에 관하여 생각을 정리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현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스포츠, 학술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교류의 추진, 두 번째는 시정촌 차원을 포함한 가운데 경제, 관광교류의 더욱 활발한 추진, 세 번째는 현, 시정촌, NGO, NPO, 기업, 관계단체등에 축적된 기술, 인재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등,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가와현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국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정책 추진에 있어 키워드가 현민참가라고 여기 쓰여있습니다. 주민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행정측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현민참가에 의한 시민차원의 교류, 협력이 활발해짐으로써 우리 3지역의 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축적한 성과가 있으므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시민참가, 현민참가라는 시점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曹曉峰

金子教彦선생님께서 가나가와현의 협력 구상과 국제정책 추진방침에 대해서 소개해주셔서 우리에게 가나가와현의 발전 계획과 전략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金子教彦선생님의 발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에 발언하시는 두 분께서는 조금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오영균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 오영균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오영균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동성 박사님께서서는 특별히 국제협력 포럼 그 다음에 분야별 정부간 협의체, 공무원 교류 그 다음에 연구기관 협력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점을 주셨고 이 네 가지 주신 제안들은 대체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분야별 정부간 협의체는 우리가 주목할만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목으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于治賢 소장님과 공동되는 분야면서도 한번 더 강조되어야 될 분야가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于治賢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교류의 장이라든가 인적자원 개발협력이라든가 다양한 콘텐츠를 어떤 시스템과 함께 제시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인적자원 개발하고 자유무역지대 건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원고를 할양해 주셔서 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특성 반영이라든가 협력내용의 다양화 뭐 탄력적 조정, 특수성 반영, 신속성 등의 장점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저는 그러한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장점이나 어떤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의 한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머리를 맞대어서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인 측면에서 또 재원의 측면에서 또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법적인 권능측면에서 특별히 법적 권능측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개국이 갖고 있는 분권화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공통이슈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유감스럽게도 3개 지방정부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공동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협력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먼저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안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원칙은 먼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 두 번째는 사업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세 번째는 근본원칙으로서 호혜적인 사업,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이러한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한 다음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리스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추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이 확보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3개국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토의내용은 지금의 3개국 협의가 아직은 이벤트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이것이 제도화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제도는 행정의 조직체계 혹은 운영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구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사조직 측면에서 지금 3개국 같은 경우에 해외협력부서가 분명히 있고 해외협력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한·중·일 좀 좁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요녕성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 경기도의 3개국의 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자가 분명히 명확하게 그 분의 공식임무로서 직책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 중에서 하나의 별도로 업무로 부과됐을 때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담당관이 있고 그 담당관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부서로 연결이 되면서 인사교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정보교류 부분을 김 선생님도 그렇고 오 선생님도 강조하셨는데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내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수준에서 가공되지 않은 자료들이 제공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그러한 정보교류가 점차로 가공된 인포메이션, 정보수준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상의될 수 있는 컨설팅 단계까지도 확대될 수 있고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시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얼마전 작년에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본의 지정시 지금은 저희들은 특정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자료가 사실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는 있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서 가공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교류의 차원이 어떠한 파일이 왔다갔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파일에 담겨있는 공무원들의 경험과 지혜가 함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희망해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소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하시는 공무원의 언어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언어문제를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

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간에 협력을 담당하는 담당자라면 그 해당되는 언어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기본적인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 교류, 협력, 프로젝트 단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언어적인 자유함, 자유로운 의사소통 부분은 아주 기본적이고 작은 거지만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가나가와현에서도 다양한 계획을 제시해 주셨고 경기도도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요녕성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단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라는 것은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력이 제도화되기 위해서 일정한 펀드라든가 만약에 펀드가 어렵다 한다면 작은 단위라 하더라도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지출 항목을 요녕성, 가나가와, 경기도에서 예산지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가칭 한·중·일 협력사업비 혹은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협력사업비로 특정예산항목을 공히 설정해 놓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화의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曹曉峰

오영균박사님은 앞서 여러 연구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평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몇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동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3국의 정치체제, 관리체제 등 각 방면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적합한 협력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최대의 효과나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 방면의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균박사님의 발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녕성정부발전연구중심의 盧松주임이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 盧松

방금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성박사님께서 요녕성과 가나가와현에도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바로 요녕성정부발전연구중심이 그러한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요녕사회과학원 역시 같은 기능을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요녕성정부발전연구중심, 요녕사회과학원 모두 여러 가지 영역과 과제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동성 박사님과 于治賢박사님의 발표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관점 모두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동성박사님이 말씀하신, 지방화는 세계화의 한 구성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관리체제가 이전에 국가 중심에서 점점 지역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의 지방분권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는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한 于治賢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경제체제의 동일화 추세 역시 매우 새로운 관점입니다. 또한 金子敦彦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가나가와현의 국제교류와 협력진작에 대한 주제는 국민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사고였으며 저 역시 이점에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러 박사님들의 발표에서 발견하였듯이 오늘 이후 세 지역이 협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광범위하게 의견을 공유하였고 몇몇 구체적인 시책방안에 공통된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 곧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안이나 구상들이 모두 가치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현재 세지역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세지역의 경제협력문제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것처럼 세 지역의 경제 발전은 서로 보완적인 비교우위가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시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가장 명백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중국의 비교우위, 그리고 요녕성의 비교우위는 잠재력 있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앞으로 중국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정부는 동북노공업기지 부흥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요녕성은 중국의 ...가 될 것입니다.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를 계기로 요녕성은 적극적인 산업발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산업의 해외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녕성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한국과 일본의 산업이 요녕성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나가와현과 경기도는 산업의 해외이전 과정에서 요녕성의 이러한 비교우위나 잠재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의 회의에서 세지역의 협력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의 협력은 아직도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于治賢박사가 제시하신 동북아 자유무역지대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동북아자유무역지대는 사실상 현재 한·중·일 3국의 정계나 학계차원에서 이미 광범위한 토론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보다 빠르게 전개하기 위하여 세지역의 지방정부는 물론이며 학계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많은 고민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于治賢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동북아지역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요녕성, 조금 광범위하게 말하면 동북 3성과 경기도 및 가나가와현에 비교적 가까운 산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당장 한·중·일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일부 특정 지역들, 예를 들면 요녕성의 요동반도나 산둥성의 산둥반도와 같은 지역에서 독자적인 설립계획을 세워 먼저 일본 및 한국과 지역경제일체화를 실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덩샤오핑 선생은 생전에 중국 내에 홍콩과 같은 곳을 여러 개 건설할 것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였습니다. 홍콩과 같은 곳을 여러 개 건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산둥반도나 요동반도로 하여금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형상적으로 말하여 두 지역을 홍콩화한다는 것입니다. 홍콩화의 첫 번째 의미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이며, 두 번째는 관세율 제로의 자유무역항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 산

동반도와 요동반도는 아주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른 곳에 비해 한발 앞서나가고 있어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인구는 약 8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시는 모두 14~15개 정도입니다. 국토면적은 한국과 비슷하고 인구는 80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이 두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한다면, 한·중·일 3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중국내 여러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동성박사님이나 金子教彦선생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曹曉峰

지금 약 2분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문정구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 문정구

죄송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세 분이 발표한 발언 내용이 너무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동북아경제론을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더 좋은 것은 오영균 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기분에 말이지요. 그냥 가기에는 세 사람의 보물창고에 왔는데 문을 안 열어보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 박사님이 문제 제기한 정말 실현방안이 뭔가 그리고 지금 盧松 선생님이 말씀하신 협력 이런 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역협력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조성된 것 같고 지역협력을 하려면 우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는 제가 보기에 100점입니다, 3개 지방정부가. 그러면 자세입니다. 이걸 호혜평등의 자세입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유지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호혜평등의 협력자세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방안이 뭐냐,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盧松 선생님이 문화협력 무슨 정치협력, 행정협력, 정보교류협력 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경제협력을 말씀하셨는데 경제협력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산업계 기업인들에게 맡기고 제가 하나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적은 겁니다. 아주 적은 것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실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먹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나 한국, 중국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유기농산물이니, 친환경농산물이니 중국은 리셔슈핀이라 그래 가지고 녹색식품, 일본도 마찬가지로 유기농산물 굉장히 중시하고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이 물건이 틀림없다 하면 세배, 네 배, 다섯 배 주고 삽니다. 거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동북3성은 아까 盧松 선생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지방정부가 기업과 같이 짝을 지어서 요녕성에다가 공장을 하나 만들고 경기도에 하나 만들고 가나가와현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상표를 만드는데 특색있게 3개 지방정부가 합작으로 만드는 품질을 보장하는, 정말 좋은 식품이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상표브랜드화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중국시장, 한국시장, 일본시장 공략하는데는 시간문제라고 봐요. 가능하다고요. 가령 기꼬만간장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또 다른 기꼬망간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간장, 한국의 메주, 중국에서 나는 콩을 가지고 정말 품질 좋은 메주를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서 똑같이 만들어서 간장을 만들던가 가져오던가 팔던가, 자, 유기농산물 각종 채소를 한국에서 재배해도 좋고 중국에서 재배해도 좋고 일본에서 재배해도 좋아. 어떤 3개 지방정부가 생산했다는 브랜드만 붙여 가지고 팔면 아마 몇 배 가격을 받아도 잘 팔리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CHINA 앞에 3개 글자 CHI, KOREA 앞에 3개 글자 KOR, JAPAN 앞에 두 글자 JA, CHIKORJA가 됩니다. CHIKORJA라는 상표를 하나 해 가지고 이걸 예를 든 겁니다. CHIKORJA를 상표로 해서 3개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하고 그냥 하기 뭐 하니까 기업체도 좀 해서 3개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 필요하면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걸 돈도 많이 안 들고 또 쇠퇴되는 농산물 1차 산업도 부흥시키고 이것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걸 건의드리면서 제 말씀을 간단히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曹曉峰

오늘 우리는 공통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토론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 다음에도 회의는 계속 개최될 것입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좀 더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가치 있는 성과가 더욱 많이 나와 세 지역의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고, 또한 경제·사회·문화방면에서 협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분과에서 토론이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게 되어 사회자로서 여러 학자분들이나 동시통역사,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동북아국제학술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